

[건축 정책]
2010 - 2012

THE
ARCHI-
TECTURAL
POLICY OF
KOREA

2010-2012



[건축 정책]
2010 - 2012

THE
ARCHI-
TECTURAL
POLICY OF
KOREA

CONTENTS

01 / 건축정책 소개

건축정책의 도입배경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다양성 및 디자인 질 요구	10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11
세계화에 따른 지역건축문화자산의 가치 재발견	12
건축정책 개념의 등장	13

건축정책의 체계 및 주체

건축정책의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	14
건축분야의 최상위 국가정책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15
건축정책의 추진주체	16
건축정책의 심의·관리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6

02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현황 및 성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2
계획 수립 과정	23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23
전략별 실천과제 선정원칙	2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및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26
2010~2012년 대상 단위사업별 이행 현황	26
건축정책기본계획 현재 수준과 정책적 실효성	29

03 /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성과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36
건축디자인기준	37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38
해안경관가이드라인	39
수변경관가이드라인	40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	41
체감형 시설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4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43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 사업	44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45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46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47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49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5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53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4
2010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8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9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61

건축 · 도시환경 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65
민 · 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70

04 / 건축 · 도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성과

녹색건축 · 도시 구현

탄소 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7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78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83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85

건축 · 도시산업의 고도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86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89
건축 · 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93

05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 활용	98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101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103
대한민국 경관대상	106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107

부록 - 유럽의 건축정책

유럽연합(EU) 건축정책 수립과정	114
유럽연합(EU) 건축정책의 계획과 실행	116

건축정책

2010-2012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것이 건축정책이 갖는 의미이다.”



【 건축 정책 】

2010 - 2012



건축정책 소개

건축정책의 도입배경

건축정책의 체계 및 주체

건축정책의 도입배경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 전경



프랑스 파리의 도시 전경

건축 ·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성 및 디자인 질 요구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수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표준화 및 대량공급을 수단으로 기본적 욕구 충족을 지향해 온 사회 기조가 지역별 · 개인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화 · 예술 · 산업 · 생활 ·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정체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건축 · 공간환경에서도 기본적인 공간수요 충족과 기능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과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며 건축 · 도시환경의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고양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생활공간인 주거공간이 ‘성냥갑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 형태로 양산되어왔다는 사실, 수많은 지방 도시들이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 만큼 획일적 풍경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 건축 · 도시 정책의 성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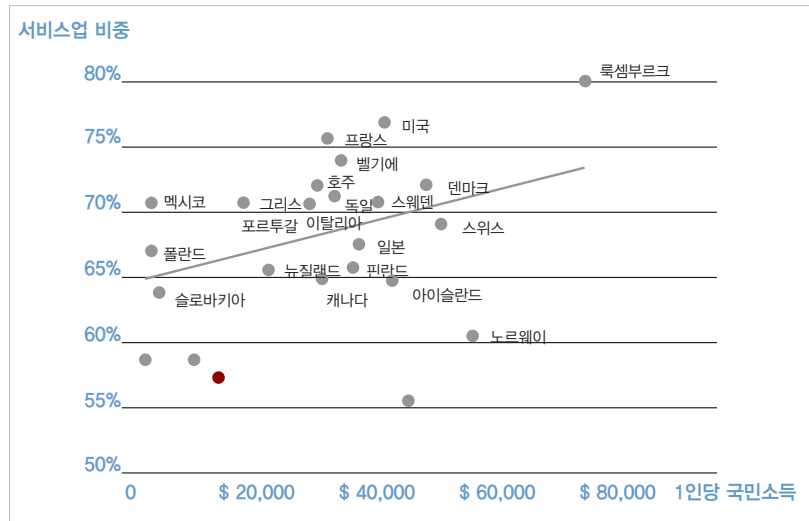
건축물과 공간환경 모두에서 지속하여온 이러한 정책은 국민 생활공간의 양적 충족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장소적 특성에 바탕을 둔 다양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향해 높아진 시민들의 질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과 장소의 특성과 여건,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건축 · 도시공간이 대량공급 기조 속에 표준적이고 효율 우선적인 과정으로 설계됨으로써 빚어진 필연적 결과로서, 국제설계경기 등 일회적인 우수설계 조달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기후변화협약(1992), 교토의정서(2005),
국제회의(2013예정) 등으로 탄소 제로,
CO₂배출권,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건축가협회(UIA) 18차
시카고대회(1993)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의존성에 관한 선언'이 선포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분야에서의 대응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비중 (주:1인당 GDP는 2004년, 서비스부문 비중은 2003년 기준)

※출처 : OECD in Figures(2005),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김진욱 외(2008)),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재인용)

최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로의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활공간의 양적인 기반 확충에 두어졌으며 건축정책 역시 건설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팽배하였다. 그간 도로, 항만, 댐, 주거단지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녹색성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공간으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국민 생활공간 전체를 지속가능한 저에너지 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 바 이를 주도해야 할 건축서비스산업의 역량이 새로운 시대 요구에 대응한 정책 수행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공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임은 물론, 창조성과 기술력을 겸비해야 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무한하여 녹색성장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분야이다.

양적 확충 기초 속에 축적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생산단계에서 최적설계가 되지 못하여 국가자원의 낭비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단기간에 폐기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축적되어 있어 녹색 시대로의 전환에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역시 양적 확충 위주의 설계 패러다임 속에 낮은 생산성, 글로벌 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경직된 제도·기준이 체제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녹색성장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공간 창출을 담당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쇄신과 육성이 필요하다.



남대문 화재사건 현장

지난 2008년 2월, 국보 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만 보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써 우리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등 그 동안 우리는 지역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에 따른 지역건축문화자산의 가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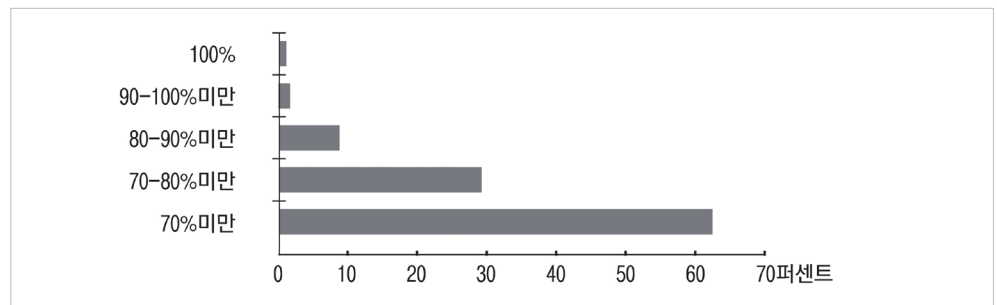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세계는 단일경제권으로 변화하였고 각국 기업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기업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도시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은 세계 각국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그랑프로제나 스페인 빌바오시티 등을 비롯하여 해외의 지방 중소도시들조차 오래전부터 건축·도시공간을 중요한 지역문화자산으로 계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의 건축자산은 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수준을 고양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기도 하다. 과거 건축유산의 보존·활용은 물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공간 창조를 병행하여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향후 중요한 도시발전 전략이자 건축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소극적인 건축문화정책은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조차 불충분한 수준으로서 이를 시민생활공간으로 연계하는 등 시민생활문화 고양,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건축자산 계발에는 인식 및 역량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의 건축자산은 지역의 생활 속에서 향유되는 데에 본연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에 갖는 의미 역시 이때에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즉 지역건축자산의 가치는 지역의 수많은 건축전문가와 주민들이 건축자산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수준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 가치를 더욱 높은 가치로 개발하는 지역의 역량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확보 가능하다.



한국의 건설기술·건축문화 수준 및 발전방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독일·덴마크 등 건축문화 강국으로 일컫는 선진국의 도시와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61.7%가 해외에 비해 70% 미만이라고 답하였다.

건축정책 개념의 등장

이와 같은 국가 사회적 필요로 인해 건축물의 공공적·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문화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었다. 이에 2007년 12월 정부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10년 5월 3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현재 정부는 이 계획을 근거로 국토해양부를 주무 부처로 건축·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개의 광역시·도에서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 추진도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공공성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건축을 사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건축 행정이나 도시 관리의 틀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건축 및 도시환경의 품격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정책의 체계 및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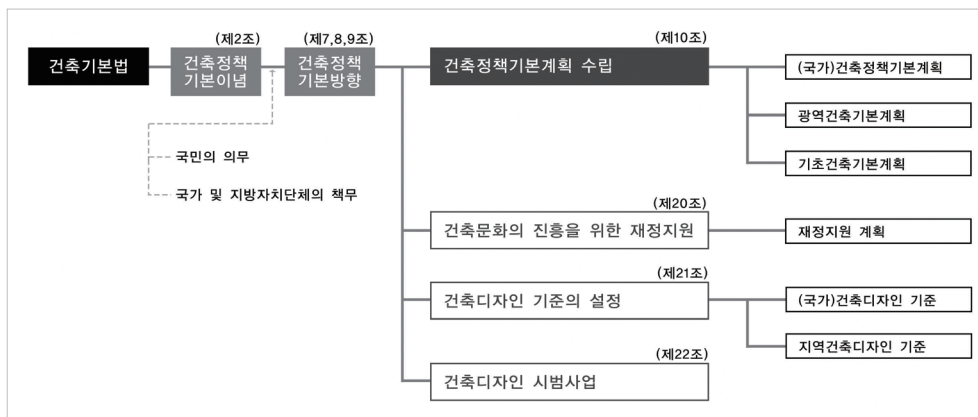
건축정책의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은 그 용어와 함께 유럽에서는 10여 년 정도 일찍 시작되어 왔다. 유럽연합(EU)에서 건축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16개가 존재하며, 그 추진방식 또한 국가별로 특성이 다양하다. 건축정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한 국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 타 계획에서의 부문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등 3가지 방식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3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하여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정책이 시작되고, 그 근거법령이 되는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기본이념으로써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이라는 3가지 부문의 건축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제시하는 등 건축기본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기본법의 구성

건축분야의 최상위 국가정책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기본법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의 품격과 품질, 도시경관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분야의 최상위 국가 정책계획이다. 또한, 국토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관련 산업 육성, 건축문화 진흥, 녹색성장 구현 등 다양한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계획이자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획범위는 공간적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내용은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체계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방안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기반구축 ·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 건축문화 진흥관련 주민지원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 및 부서

건축정책의 추진주체

건축정책은 누가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리하는가? 건축기본법에서는 제4조와 제5조에 추진주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올바른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건축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력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건축기본법이 포괄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초가 되는 공간으로서 국민 모두가 건축정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중 건축정책의 실체인 기본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주체와 심의주체, 시행 및 관리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정책의 수립주체는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6개 모든 부처를 포괄하였으나 2011년 1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되었다. 심의주체는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로써 대통령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 지역 차원에서의 건축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정책의 심의·관리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은 단일부처에서 추진 및 관리할 수 없는 범부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군사시설은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 및 의료시설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항만시설 등 SOC 시설을 비롯하여 주거정책 및 건축에 관한 법·제도를 맡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오랜 기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건축정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내에 3개의 분과위원회와 사무 처리를 위한 기획단으로 조직되어있다. 2008년 출범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1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활동에 이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중장기 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와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들을 다수 배출해 내었다.

제1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성과로는 최초의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품격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과로 국가 상징거리 기본계획 수립,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 제식,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 도모를 위한 성과로 보금자리주택의 품격 제고,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전통 한옥 보전 및 한옥 보급 활성화 등이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내용

제2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성과로는 국민 체감형 건축정책으로 도심 저층 주거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단독 주택지 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등이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 조정·검토, 국가 국가상징거리의 지역 확산, 녹색건축·도시 인증제 통합 및 국가브랜드 제정, 건축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新한옥의 보급 활성화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건축의 날” 정부포상 훈격 격상 추진, 설계·감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활성화, 공공 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 등 건축 관련 제도개선 성과들이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건축순회포럼, 건축 5단체장 간담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과 업계의 눈높이를 맞춘 원활한 소통에 주력 해 왔으며, 건축계의 위상제고와 권익향상을 위해 입찰제도 · 대가기준 · 훈포장 등 불합리한 일부 제도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대응 · 조정하고, 무엇보다 국회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여 가장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

구분	제1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가상징거리기본계획 수립 •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 제식 •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보금자리 주택의 품격 제고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전통 한옥 보전 및 한옥 보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 단독 주택지 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 •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 • 국민주택 규모 조정 · 검토 • 국가상징거리의 지역 확산 • 녹색건축 · 도시 인증제 통합 및 국가브랜드 제정 •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기반조성 • 新한옥의 보급 활성화



도시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곳이다. 그리고 도시가 위대한 것은 도시의 넓은 면적이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담 때문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그들이 지닌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가지 이유와 계기 때문에 도시로 모여든다. 어떤 이들은 권위에 의해, 어떤 이들은 강제로, 어떤 이들은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이다. <G. Botero, *The Greatness of Cities, in the Reason of State*(1588, 1606), transl. R. Peterson(London 1956), 227.>

스피로 고스토프, '역사로 본 도시의 형태', 공간사. (P.7)



【 건축 정책 】
2010 - 201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현황 및 성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 터의 구현을 위해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하고, 6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전략	전략1_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전략3_ 녹색건축·도시구현	전략5_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실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제고 ·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 지역 건축자산을 재 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전략	전략2_ 건축·도시환경 개선	전략4_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전략6_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실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계획 수립 과정

국내에서는 선행사례가 없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에서 수많은 건축·도시·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우선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포함해야 할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산·학·연·관 외부전문가 43명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여 차례의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의 큰 틀과 세부내용을 조정하였다.

또한, 건축 관련 사업을 연계·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부처(15부 2처) 협의와 함께, 일반 국민·민간전문가·언론기관·관련 학협회를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밖에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및 건축산업동향 조사, 국제심포지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관별 시책조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 전략별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환경디자인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1) 도시 내 국민 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과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 자연과 조화되는 농어촌 경관 형성과 동서 남해안의 해안경관 창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토의 품격 향상을 추진한다.

2) 친환경 철도의 건설과 고속도로 디자인 정비사업, 항만시설의 디자인 개선, 명품교량 건설 및 관광 자원화 등 주요 SOC 시설별 디자인 향상 전략을 마련한다.

3) 공공부문 디자인업무 개선을 통한 통합디자인 실현, 발주방식의 다양화, 관련 법령관 효율적 연계·통합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건축·도시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1)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와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

2) 공공청사,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합리적 설계기준 마련, 학교시설의 디자인

강화,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 등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3)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지원 종합대책 마련 등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도심재창조를 추진한다.

셋째, 녹색 건축·도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1)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의 조성을 통한 탄소 저감형 도시환경 형성을 유도한다.

2)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3) 그린홈 공급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제고, 주택부문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 친환경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한다.

4)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의 보급과 탄소제로 건축 시범사업 등 녹색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와 관련하여서는 1) 건축사 등 전문가의 역량강 화와 건축 관련 국가 R&D의 확대,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2) 내진기준과 방재기준의 강화 등 건축(조경) 관련 기준의 성능중심으로의 전환과 건축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 등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3)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설계기술의 개발과 IT 기술과의 융·복합화 등 녹색건축 관련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 산업을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다섯째,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과 관련하여서는 1) 기존 도심의 한옥 지구 보전·재생과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술개발,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 등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의 유희 건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 등 지역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건축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광화문~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and 지역의 대표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 자원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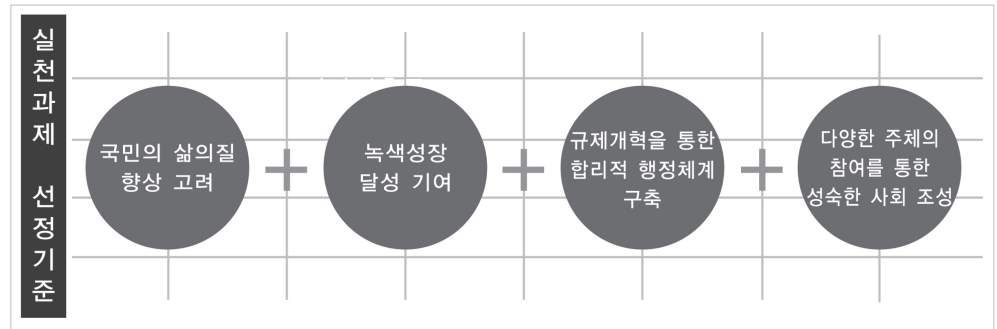
여섯째,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1) 각종 건축관련 행사의 내실화와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도입,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건축문화 교육확대,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실현한다.

2) 국내의 우수 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축가(조경가) 국제브랜드화 추진과 해외공관을 활용한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건축문화 기록물의 축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다.

전략별 실천과제 선정원칙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한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로서 도시환경의 기반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로는, 국정과제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녹색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과제로서 녹색산업,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법·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과제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추진주체의 통합적 참여를 통해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기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과제의 선정기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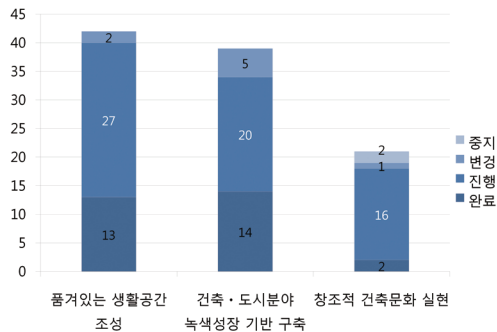
6대 추진전략 18개 세부과제의 단위과제는 총 113개로서, 완료 29건, 진행 63건, 변경/중단 10건 사업까지 추진실적 성과 범주에 포함한 성과포함사업은 총 102건(92건)¹⁾, 미포함 사업(추진예정)은 11건으로 전체의 90%가 성과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10~2012년 대상 단위사업별 이행 현황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102개의 단위과제 사업 중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은 42건,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부문은 39건,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은 21건의 단위과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은 사업성과 대상에 포함되는 102개 과제 중 총 42개의 단위과제 사업을 수행중이며, 13건이 완료, 27건이 진행, 2건이 변경/중단 상태이며,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은 39개의 단위사업 중 14건 완료, 20건 진행, 5건이 변경·중단되었다.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은 총 21개의 단위과제가 추진중이며, 2건이 완료, 16건이 진행, 3건이 변경·중단된 상태이다.

6개 추진전략별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환경디자인’과 ‘녹색건축·도시’의 사업이행·완료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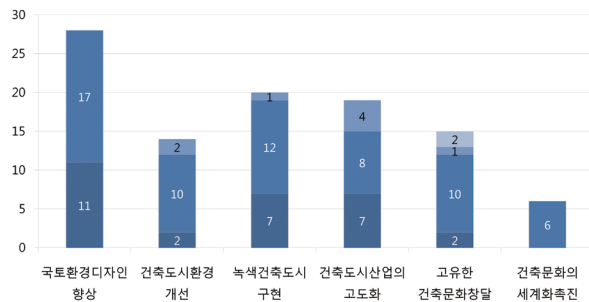


부문별 사업진행 현황 그래프(단위과제 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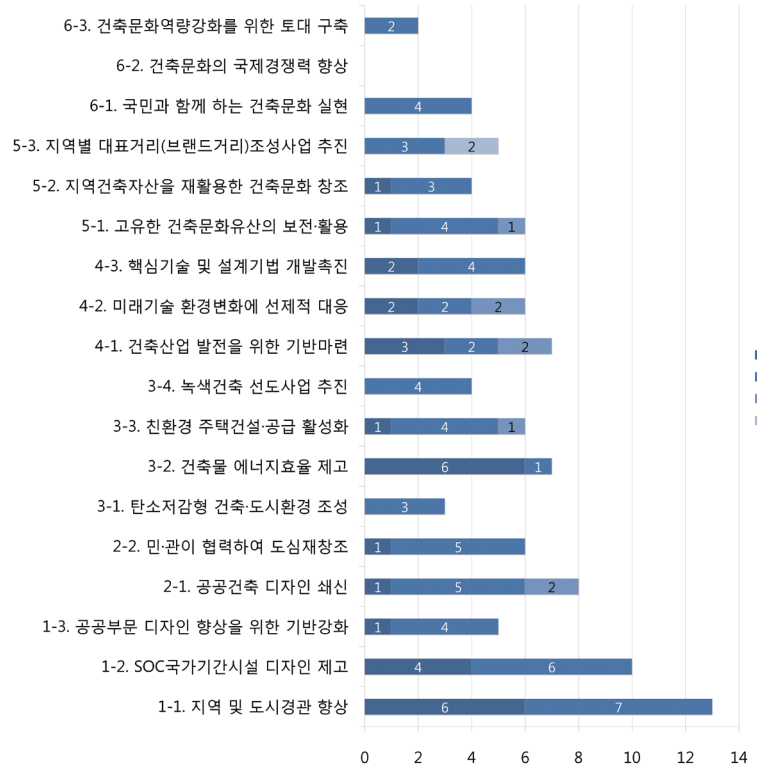
1) 변경/중단 사업도 추진실적 현황의 성과대상에 함께 포함하여 2010~2012년 사업 추진실적 이행현황을 평가함. 2010~2012년 착수/진행/완료된 단위과제사업이 총 92건이며, 이중 변경/중단된 사업 10건을 포함하여 총 102개의 단위과제 사업을 사업추진실적 평가 대상범주에 포함(2012년부터 추진예정인 11건의 사업은 평가 대상범주에 미포함)

‘국토환경디자인 향상’ 부문 28개 단위과제 중 11건 완료, 17건 진행, ‘건축·도시환경 개선’ 부문 14개 단위과제 중 2건 완료, 10건 진행, 2건 변경/중단, ‘녹색건축·도시 구현’부문 20개 단위과제 중 7건 완료, 12건 진행, 1건 변경/중단,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부문 19개 단위과제 중 7건 완료, 8건 진행, 4건 변경/중단, ‘고유한 건축문화창달’ 부문 15개의 단위과제 중 2건 완료 10건 진행, 2건 변경/중단 중이다.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부문 6개의 단위과제 중 6건이 진행 상태에 있다.

18개 세부과제의 2010년~2012년 기준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세부과제 중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부문은 관련 단위과제 사업 4건 모두 추진예정사업으로 성과범위의 단위과제 사업이 없다.



추진전략별 사업진행 현황 그래프(단위과제별 건별)



세부과제별 사업진행 현황 그래프(단위과제 건별)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 총괄현황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단위과제 (건)	단위과제 사업 착수 현황(건별)						추진실적현황				
				2010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변경	중단	추진예정	성과 포함*	미 포함**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1.국토 환경 디자인 향상	1-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13	1	9	1	2	-	-	-	-	-	13	-
		1-2. SOC국가 기간 시설 디자인 제고	10	1	7	-	2	-	-	-	-	-	10	-
		1-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6	1	2	1	1	-	-	-	-	1	5	1
		합 계 (사업건수)	29	3	18	2	5	-	-	-	-	1	28	1
	2. 건축 도시 환경 개선	2-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8	1	4	1	-	-	-	2	-	-	8	-
		2-2. 민·관이 협력 하여 도심재창조	6	-	6	-	-	-	-	-	-	-	6	-
		합 계 (사업건수)	14	1	10	1	-	-	-	2	-	-	14	-
건축·도시 분야 녹색 성장 기반 구축	3.녹색 건축 도시 구현	3-1. 탄소저감형 건축·도시환경 조성	3	-	3	-	-	-	-	-	-	-	3	-
		3-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7	-	7	-	-	-	-	-	-	-	7	-
		3-3. 친환경 주택건설·공급 활성화	6	2	3	-	-	-	-	1	-	-	6	-
		3-4.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4	-	2	2	-	-	-	-	-	-	4	-
		합 계 (사업건수)	20	2	15	2	-	-	-	1	-	-	20	-
	4.건축 도시 산업의 고도화	4-1.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7	-	-	3	2	-	-	2	-	-	7	-
		4-2. 미래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6	-	3	1	-	-	-	-	2	-	6	-
		4-3. 핵심기술 및 설계 기법 개발촉진	6	1	5	-	-	-	-	-	-	-	6	-
		합 계 (사업건수)	19	1	8	4	2	-	-	2	2	-	19	-
	5.고유한 건축 문화 창달	5-1.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활용	6	1	3	1	-	-	-	1	-	-	6	-
		5-2. 지역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4	1	-	2	1	-	-	-	-	-	4	-
		5-3. 지역별 대표거리 (브랜드거리) 조성사업 추진	5	3	-	-	-	-	-	-	2	-	5	-
		합 계 (사업건수)	15	5	3	3	1	-	-	1	2	-	15	-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6.건축 문화의 세계화 촉진	6-1.국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실현	6	-	1	2	1	-	-	-	-	2	4	2
		6-2.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4	-	-	-	-	-	-	-	-	4	-	4
		6-3.건축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6	-	-	2	-	-	-	-	-	4	2	4
		합 계 (사업건수)	16	-	1	4	1	-	-	-	-	10	6	10
	총 계		113	12	55	16	9	-	-	6	4	11	102	11

* 2010~2012년도 시작 및 완료 사업으로 성과보고 대상의 사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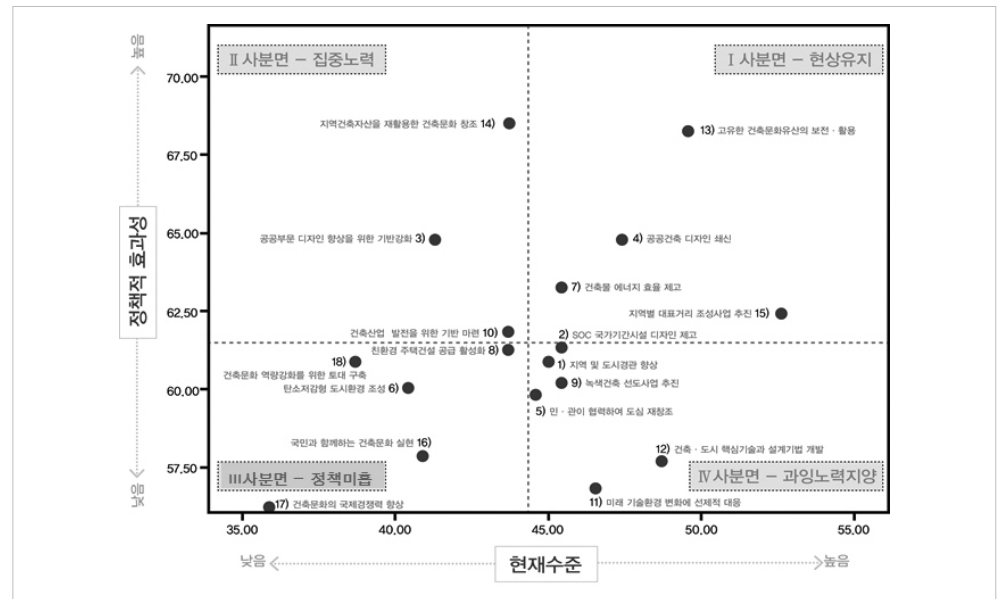
** 2012년도 시작사업 혹은 이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성과보고 대상이 아닌 사업

건축정책기본계획 현재 수준과 정책적 실효성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현재수준과 정책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각각의 18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각각 5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현재 수준 정도는 44.4점(100점 환산점수)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효과성 또한 60점(100점 환산점수)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수준과 정책적 효과성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수준은 높지만 정책적 효과성이 낮은 과제들은 정책적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현재수준과 정책적 효과성이 모두 낮은 과제들은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현재수준 및 정책적 효과성 IPA분석결과

건축정책기본계획 현재수준-정책적 효과성 분석의 4분면

구분	정책적 효과성	현재 수준	개선방향	실천과제	2010-2012년 성과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
현상유지 (Ⅰ사분면)	높음	높음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발전전략 수립 한옥 공공건축물 예산 및 기술 지원 국가 한옥센터 설립 보전지역 내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스타일 공동주택 건설 한옥개입주택단지 건설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급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 추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마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공공건축상 시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설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보급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주택에 대한 시상·포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규정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 시범도입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마련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저에너지 부문의 건축설계·시공 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대표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집중노력필요 (Ⅱ사분면)	높음	낮음	현재수준을 개선하기위한 집중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역서울 284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시설을 주거용도(Transit Housing)로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설계과정평가지표(DQ) 개발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간의 효율적 연계·통합을 통한 법체계 위상 정립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건축사 역량 강화(건축사법 개정)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관련 국가 R&D 강화
정책미흡 (Ⅲ사분면)	낮음	낮음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홈 보급자리주택 공급 에너지소비량 인터넷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주택의 에너지소비 측정·검증 확대 주택신축과 개량을 통한 그린홈 건설·공급 미래형 Smart-Green City 시범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건축문화기록물 축적·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방안 연구 수행 기초건축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교재 주요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의 권위 제고 및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미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건축가 해외 소개·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지원 한국적 디자인요소 연구 및 홍보 해외공관에 한국적 디자인 요소 적용

구분	정책적 효과성	현재 수준	개선방향	실천과제	2010~2012년 성과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
과잉노력지양 (Ⅳ사분면)	낮음	높음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개선 항만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 협력설계 추진 설계디자인 공모제도 도입 등 친환경 철도, 경관도로 조성사업(계속) 항만시설의 디자인 개선(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경관조명, 해안경관,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경관 추진 체험형 시설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광주폴리 프로젝트 사업 추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적 공간계획 수립, 총괄계획 기능 강화 및 디자인 심의절차 강화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거모델 개발·보급 체험형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계속) 친환경 친수공간의 생태하천 조성(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스쿨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 건축 탄소제로 건축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안상정 중) 도시개발 사업방식 개선, 지자체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제정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구축(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선진설계기술 개발 녹색건축 관련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 표준화 연구개발 건축설계 BIM 도입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 고층 건축물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M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



근대 이후 한국건축은 재료와 구조, 형태와 장식에서 다양한 양식이 난립하게 되었고 시각적 환경의 일관성도 상실했다. 문자 그대로 탈 역사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 서구의 도시를 채우고 있는 건축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의미 있는 문화적 오브제로 기능하는 것과 반대다. 한국의 도시와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건축의 공유된 가치와 양식적 규범이 아니라 법규와 행정 절차다. 한국건축에서 통용되는 공유된 가치 기준을 찾으라고 하면 면적당 가격 외엔 딱히 내세울게 없다.

이상헌(2013),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효형출판. (P.176)

【 건축 정책 】
2010 - 2012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성과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 · 도시환경 개선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경관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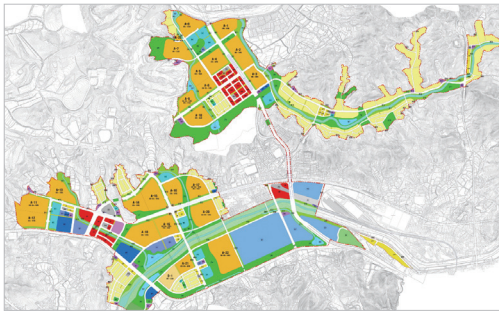
경관법 개정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SOC 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하였다.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하였고, 도로·철도·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통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경관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문 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개발·정비사업 비용 지원 시 우수경관의 보전·창출 계획이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관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가로·공원 등의 공공 공간, 각종 시설물에 경관 심의를 통한 관리로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력 제고 및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의 토지이용계획(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차원의 사전경관계획(새로 도입될 경관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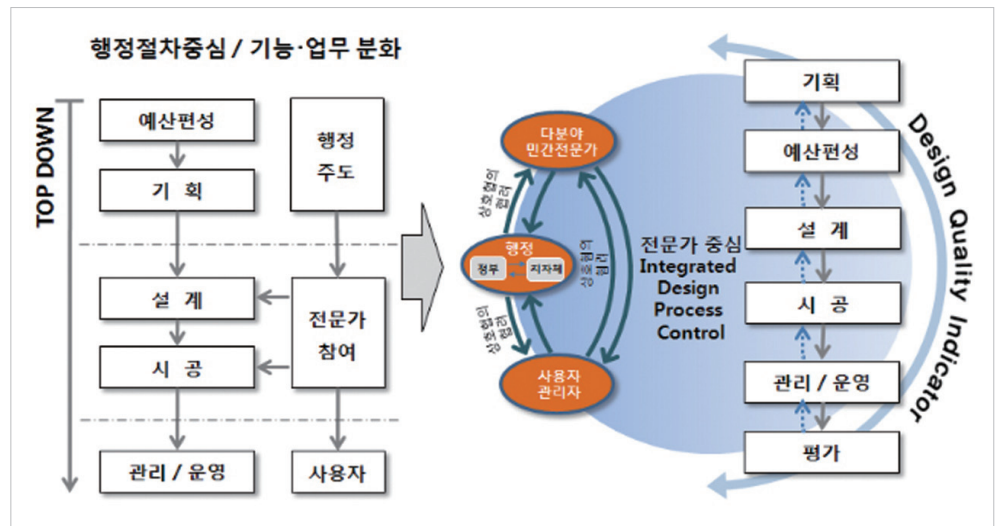
건축디자인기준

건축디자인기준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디자인수행 업무지침’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단계별로 디자인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기준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관련 사업 및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시공과정에 대한 디자인 감리 시행 및 지역 내 기준과 시설별·사업별 기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의 실정에 맞는 건축디자인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디자인 검토를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기준은 국토환경을 구성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등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별 기준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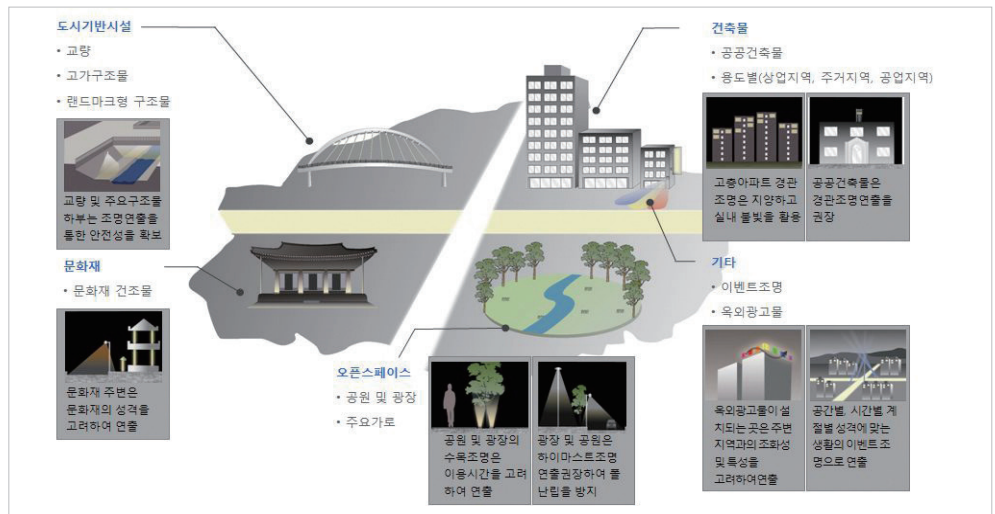
도시의 화려한 야경 이면에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기준과 권고사항이 무시된 채 무리한 조명과 부적절한 경관계획 등으로 인하여 야간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소모적인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조도의 조명설치계획을 통한 광공해 방지 및 절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경관조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었다.

경관조명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유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은 야간활동을 위한 적정수준의 빛 환경을 제공하고, 건축 내부로 유입되는 빛 차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조명계획을 적용하고, 오픈스페이스는 일부 구간만 전방확산배광방식을 사용한 빛 연출과 공원 녹지 및 야간자연경관을 고려한 점·소등계획을 적용한다.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교량과 고가구조물 등에 조명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의 밝기를 기준으로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에 조명을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나 과도한 색상의 조명 연출을 지양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경관조명 적용대상



이탈리아 소렌토 해안경관

[출처]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ns.re.kr/>) - 사진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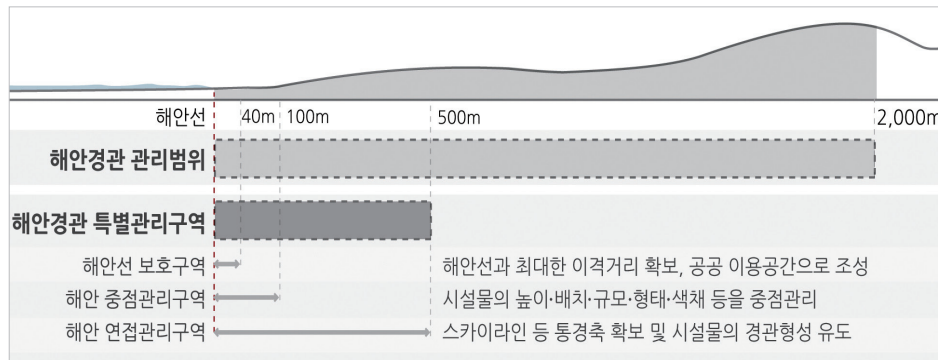
해안경관가이드라인

해안경관가이드라인은 해안권별 특색을 살리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 개방성 · 공공성 · 간결성 · 지역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 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은 특별관리구역(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 내에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에 의해 계획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은 동해안의 절벽 · 석호, 서해안의 모래해안 · 갯벌, 남해안의 리아시스식 해안과 단구 등 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 및 개발을 유도 하고 있다.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은 개발대상 지역의 경관의 우수성과 훼손 정도 등을 파악하여 개발 수준을 고려한 7개의 경관유형으로 구분,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통한 경관등급 설정하여 조망 · 건축물 · 오픈스페이스 · 공공시설물 · 옥외광고물 · 색채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해안경관가이드라인의 운영에 있어서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들을 감안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개발계획은 기획단, 실시계획은 시 · 도가 검토하며,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적용한 시 · 도에는 당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안경관

[출처]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ns.re.kr/>) - 사진자료실

수변경관가이드라인

수변경관가이드라인은 수변축 계획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변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변 지역 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자체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없애고, 수변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변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바람직한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유도지침으로서의 성격으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와 기준, 하천과 주변지역의 골격과 경관 요소의 디자인 방향 및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수변’, ‘아름다운 수변’, ‘즐거운 수변’, ‘가까운 수변’을 수변 경관 가이드라인의 목표로 설정하고, ‘도심유형’, ‘관리보전구역’, ‘자연생태유역’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도심유형’가이드라인은 시가지 경관 창출 및 친수공간으로 활성화한 경관 관리 및 형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리보전유역’ 가이드라인은 자연성 보전 및 수변 토지이용을 통한 수변 경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자연생태유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과 자연 생태계와 친수이용의 조화를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변에서 물을 바라보는 조망개념도



함마르비 수변녹지축 및 경관



샌안토니오 야간 친수경관

[출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친수도시해외사례)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 2015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외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다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전국적으로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30만 시·군에 대해서만 경관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시각경관 위주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구현을 위해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중심의 경관사업 추진’, ‘자율적인 주민 경관관리 유도’, ‘전통과 문화적 농어촌경관의 가치 발굴 보전’ 등 세 가지 전략을 설정하였다.

먼저,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중심의 경관사업 추진’ 전략은 시각중심에서 탈피한 오감경관 형성, 총괄계획가(MP) 제도의 시범 도입을 통한 마을개발 계획을 수립 등을 제시한다.

‘자율적인 주민 경관관리 유도’ 전략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체계적 경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인적·제도적 농어촌 경관관리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전통과 생태에 적합하게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 체결하고, 경관관리 추진 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과 문화적 농어촌경관의 가치 발굴 보전’ 전략은 수천 년의 농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유산과 같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농촌의 전통문화경관을 발굴·보전하여 전통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2012년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

체감형 시설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체감형 시설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 미관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총 11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0년도에는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톨게이트 지명표지 및 방음벽 디자인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사업비 2,611백만 원)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는 버스정류장 및 터널 면벽 디자인 개선, 터널 디자인 개선 등 총 8개의 사업(사업비 421백만 원)이 추진되었고,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경부선 금강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지명표지 디자인 개선



서울외곽선 판교분기점 방음벽 디자인 개선



호남선(순천) 석곡터널 면벽 디자인 개선



경부선 금강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



경부선 양산 버스정류장 디자인 개선



서울외곽선 판교분기점 절토사면 디자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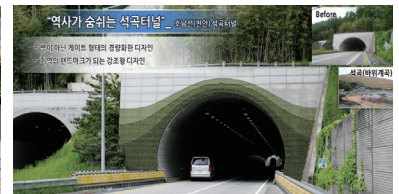
호남선(천안) 순천2터널 면벽 디자인 개선



중앙선 죽령터널 내부 경관 개선



호남선(천안) 대덕터널 면벽 디자인 개선



호남선(천안) 석곡터널 면벽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하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개정안은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아파트상가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5㎡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하도록 하고, IT를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으로 개정되었다.

동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옥외광고물 정비 전



옥외광고물 정비 전



옥외광고물 정비 후



옥외광고물 정비 후(안)



두산기업 옥외광고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 사업

광주 폴리 프로젝트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 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구 영주동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폴리가 설치된 영주동 일대 작은 공간들은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철거된 광주읍성의 무형적 복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11개의 작은 타워나 비범한 장식용 건물인 폴리(Urban Folly)를 설치, 각 공간을 명소화·장소화 함7 도심재생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기간이 끝난 후에도 폴리투어 등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유동성 조절

금남로 사거리와 금남로 공원 사이에 공원과 보행로를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폴리



99칸

충장로 파출소 주변, 지하상가 출입구에 캐노피 형태의 긴 폴리 구조물



열린 장벽

도시와 소통하고 현재의 삶과 광주읍성의 성벽을 간섭으로 한 폴리



기억의 현재화

황금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폴리



열린 공간

포장마차 구조로 현대의 상업적인 일상의 생기를 표현한 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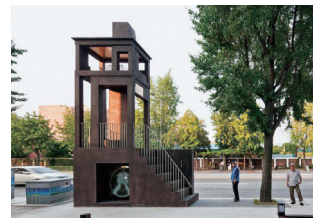
광주시랑방

역사의 창으로 구 시가지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바라볼 수 있게 계획한 구조물



소통의 오두막

옛 광주읍성터 10곳 가운데 첫 번째 장소로 어반폴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입구와 통로로서의 역할



서원문 제등

5.18의 시대정신과 광주시민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를 상기시키는 폴리



광주사람들

스텐레스 봉을 이용하여 기존 벽과 나무가 융화되는 아케이드 형태의 폴리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2007년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도시 디자인 및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품질관리 여건을 향상시키기는 등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민간전문가는 지자체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단위총괄계획가, 시범사업 및 개발계획 전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사업단위총괄계획가,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른 위원회로 자문, 조정, 협의, 의결을 하기위해 구성된 심의기구 및 법정 자문기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민간전문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 활용 사례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전 단계에 걸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영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로 ‘공공건축가제도’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참조 선례를 구축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민간전문가의 개입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민간전문가 참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유형별 우수디자인 공공건축물 홍보자료와 전문가·실무자 간 사업 조성과정 중 시사점이 드러난 사례를 수집하고 민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업무 매뉴얼 및 다양한 참고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민간전문가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공건축물 시설과 사업현황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등 디자인 관리체계와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해 건축기본법과 건축디자인기준의 제도개선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배치-선정’ 3단계를 거쳐 인력풀을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공 발주 프로세스와 지자체 행정담당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향후 종합적인 총괄관리 및 사업의 디자인 강화 및 프로세스와 주체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를 초기기획단계에 투입시켜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개성 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농어촌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개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마을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계획은 먼저, 2013~2014까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 시범사업의 평가분석을 통해 매년 100여 개 마을에 대한 주거여건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크게 주택정비사업, 마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극히 열악한 기존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면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연계형 개발사업, 기존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한 불량 농어촌주택을 재정비하는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보조와 용자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보조지원을 통해 마을 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공동형 농어촌 주택조성 등의 기존 마을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주택관련 사업의 연계융합을 통해 마을(지구)단위로의 기반시설 확충, 빈집정비, 주택개량 등 집중·패키지화로 인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기존의 마을을 정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민 유치(귀촌)사업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용

구분		내용	
사업유형	전면재정비 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 및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고, 연결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사업내용	주택정비	주택 철거	빈집 및 30년이상 노후주택 철거
		주택 리모델링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보수, 주택 개보수, 주택경관정비
		주택 신축	
	마을정비	마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마을경관시설	담장, 수목 식재,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영유아보육시설), 공동형 농어촌주택 조성,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도시민유치	소규모마을조성(10호미만)
	지역역량강화	경관컨설팅, 주민 교육, 견학 등	

※ 농어촌주택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와 역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개선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한국 도로공사에서 2008년 ‘자연, 문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는 디자인 경영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비전에 부합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2010년 ‘고속도로공공디자인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방음벽, 휴게소 등 고속도로의 주요시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매뉴얼들은 자연과 감성, 지역문화 및 장소성을 배경으로 세부지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중장기 추진전략에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의 주변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경관 개선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고속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세부 시설물별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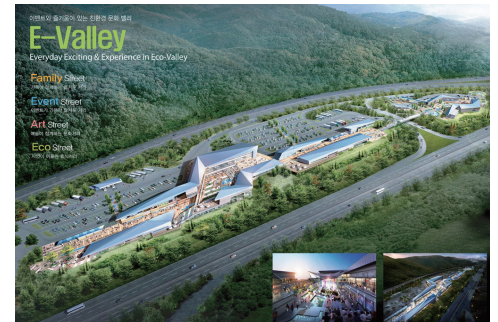
고속도로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판교톨게이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방음벽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



중부고속도로 마장 복합 문화 시설

항만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

항만 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구분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으로 구분한 항만친수시설 조성·관리 지침이 마련되었다.

체험형 친수공간은 해안변 저수위를 형성하거나 해안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완만한 경사의 해안 또는 파도가 비교적 낮은 안전한 지역)과, 조망형 친수공간은 일출, 일몰, 섬, 철새도래지 등 경관 가치가 높거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이색경관을 가진 위치를 선점하여 설치하였다.

생태형 친수공간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하였고, 레저형 친수공간은 항만시설 상부 및 수변에 지역행사 및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기습적인 악천후에 대비한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였다.

양호한 친수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대상지가 가진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특성으로 분류하여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방향과 원칙을 적용하였다.

항만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동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함부르크 하펜시티(Hamburg Haffec City) 항만 친수경관

[출처] 라펜트-환경과조경 (<http://www.lafent.com>),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호주 시드니 항만 친수경관

[출처]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영국 카디프 항만 친수경관

[출처]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일본 하코다테 항만 친수경관

[출처] <http://www.hakodate-kankou.com/> /index_k.html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도로와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도로 이용자가 시각적·심미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며, 전망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테마(녹지 및 수변, 역사문화 등)를 활용한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충남 태안(국도 77호선 안면도), 경남 남해(국도 19호선 남해대로.), 경기도 남양주(국도 45호선 북한강) 등 3개소를 경관도로 시범구간으로 선정하여 취락지 및 교차로 구간의 경관개선을 위한 부분적 차폐 식재 및 대상도로의 가로수 식재, 심터 조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조형물설치로 테마별 경관도로를 조성하였다.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내용

경관 유형		지역(국도번호)	노선연장(km)	사업비(백만원)
녹지경관	전원	충남 태안(77호선)	11.5	2,600
	하천	경기 남양주(45호선)	15	2,100
	해안	경남 남해(19호선)	5	6,060



고속도로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판교톨게이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방음벽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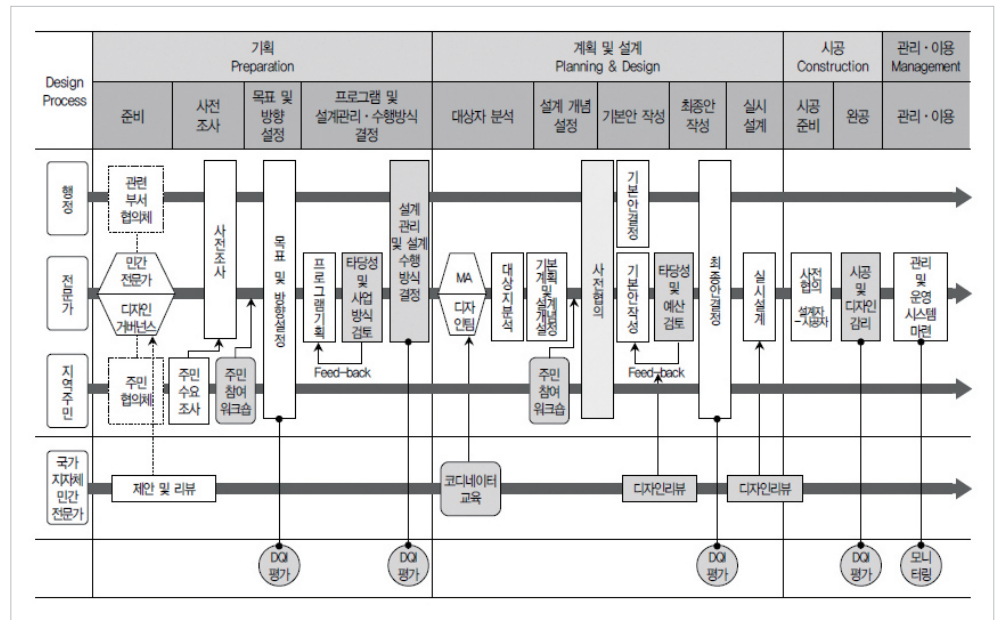
건축디자인 기준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최초의 건축에 관한 디자인기준’을 의미하며, 일종의 ‘디자인수행 업무지침’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단계별로 디자인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의 기능을 한다.

주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공공기관 관련 사업 및 민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기준, 시설별 디자인 기준, 또는 사업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디자인감리를 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권장하며,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디자인검토를 시행하게 된다.



단계별 기준

공공건축 설계과정평가지표(DQI)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방향적 건축디자인 생산·관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단체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합의형성 과정을 담은 새로운 프로세스인 DQI 개발을 추진하였다.

설계과정평가지표의 구성은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계획방향인 ‘공익성’, ‘디자인’, ‘사용성’의 3개 항목 아래 9개의 세부항목을 구성하는 7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공공건축 설계과정 평가지표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설계안에 대한 자가진단 및 수단으로 활용되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완공된 시설물이 계획의도대로 조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DB 구축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의 공공건축을 기획하는 실무담당자가 계획과정에서 선행사례 검토 자료로서 DQI를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평가지표를 제정하여, 시범적용을 통한 실용화방안을 마련하고 DQI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에 있다.

공공건축 설계과정평가지표

구분	지표	세부 지표수	주요가치
공익성	지역사회의 공헌도	8개	지역주민의 휴식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지역사회에 생활환경 증진 등
	접근의 편의	10개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계획, 교통수단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접근계획 등
	건축디자인 선도	5개	공공건축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과 의미에 대한 검토
디자인	주변환경과의 조화	7개	지형조사와 주변지역시설의 사전조사를 통한 순응적 배치, 지역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계획을 검토
	생애주기를 고려한 친환경성	10개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을 이용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건물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해 검토
	건축물의 형태 및 재질	9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옥외부착물,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한 형태와 재질의 사용 등에 대해 검토
사용성	합리적 공간이용	9개	기능에 따른 공간배치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가변성과 확장성, 적절한 공간의 계획 등에 대해 검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11개	각종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음과 채광, 환기에 대한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등에 대해 검토
	효율적 동선체계	8개	공간 내 원활한 흐름을 동선계획과 이용자 안전성 계획 등에 대해 검토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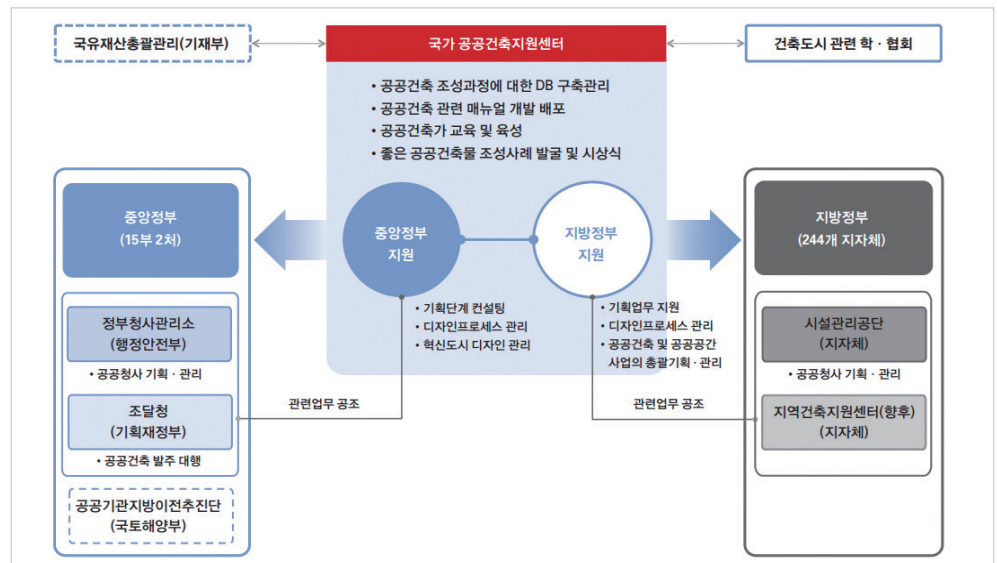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평가 순위가 44위로 비교적 우리의 건축·도시환경은 경제수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분야의 건축허가 건수가 최근 5년간 140%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 관리대상인 공공건축의 자산이 지속적인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발주 프로세스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문가가 주도하는 행정지원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확립과 행정조직 지원 및 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민관협력형 조직으로서 지원 사업별 전문가의 수행 업무범위 및 지원일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조직 내·외부 인력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의 주체로서 공공건축 사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디자인품질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 공공건축가 육성 및 행정담당자의 전문능력을 강화시키고, 공공건축 관련 홍보와 DB 운영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모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도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요구가 표출되고 국토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의 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의 특성 및 정체성 반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정착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추진 협의회를 통해 민·관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하는 등 디자인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 환류 체계 구축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자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건축디자인기준의 시범적용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 제언 등의 특성을 갖는다. 사업 첫해인 2009년 10곳을 시작으로 2010년 6곳, 2011년 2곳이 선정되어 총 18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목록

년도	지자체	사업명	지원금
2009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	2억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	1억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2억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정비사업	1억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	1억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2억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2억
	전남 영암	전통 주거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한옥상징 타워 & 박물관'건립	1억
	충남 아산	도시 속에 초록 빛 씨앗을 뿌리다	1억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	2억(1억+1억)
20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	2억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	2억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	1.5억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동 문화 만들기'	1.5억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1.5억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	1.5억
2011	경남 거창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5억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	1.5억
계			28억 원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강원도 춘천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도시공간 조성'

이 사업은 춘천시에 동서로 지나가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하부공간 부지를 이용하여 도시와의 연결과 조화로 도시환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슬럼화되기 쉬운 고가하부를 바람직한 도시의 공공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춘천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2009년 강원도 춘천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내용



2009년 경상북도 영주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경북 영주시,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경북 영주시에서는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각지 내 도로와 공원, 광장 등의 공공공간 조성, 세무서 담장 허물기, 안전한 보행가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삼각지 내부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영주시의 동서를 잇는 녹지 축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삼각지 지역은 영주시 중심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였다

대전 중구, ‘대전 문화 흐름 “대중교통” 조성사업

대전에서는 90년대 초까지 대전을 대표하는 중심구였던 중구의 원도심 기능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도심의 중심으로서 100여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중구 대중교통의 재생사업으로 시간의 연속성을 표출하는 문화예술거리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거리 구축사업은 기록의 거리(문화예술거리)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6가지 키워드를 정의하여 이에 따른 사업 및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 영주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구상도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부산에서는 해운대에서 가장 오래된 어촌마을인 청사포 마을의 소득 증대를 통해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의 관광 자원화, 정주환경 및 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어촌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어촌마을인 청사포 마을을 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으로의 조성 및 마을의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여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마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을의 물리적인 개선을 위해 마스터플랜 및 마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보나눔센터 운영하여 주민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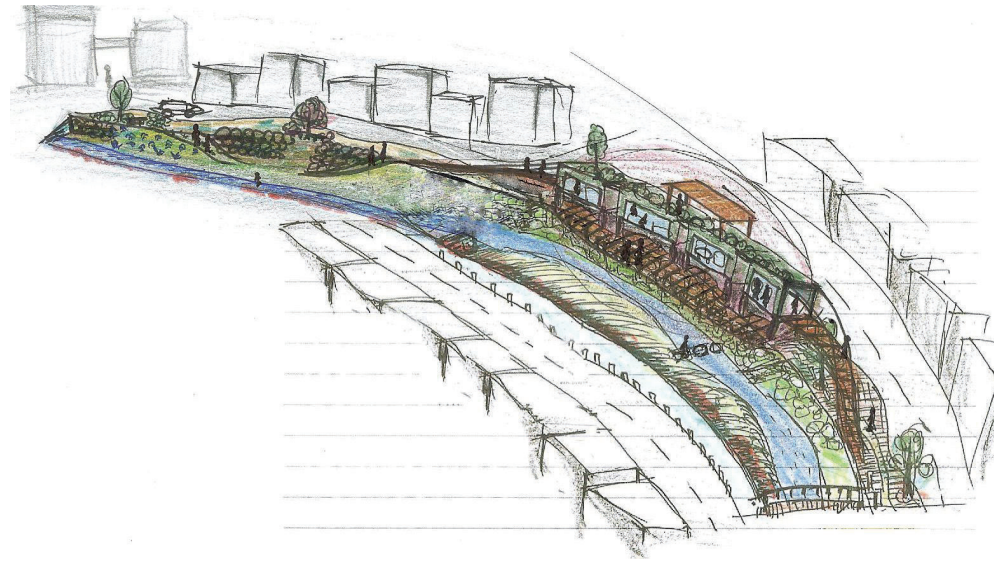


2009년 부산광역시 청사포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조성 사업'

충북 충주에서는 충주천에 대한 수변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을 창조하고 기존 용산 시민휴식공원과 연계되는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사업지 북쪽에 위치한 도심에서 남쪽 용산 시민공원과의 단절된 부분의 연계를 통해 기존공원을 활성화하고, 공원에서 상권으로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보행 동선을 유도하였다.



2009년 충청남도 충주시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내용

2010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 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

강원도 철원에서는 철새를 테마로 한 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철새의 서식을 고려한 탐조대 설치 및 취수탑 리모델링, 철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철새 마을 주변자원과 연계한 트레킹 및 라이딩 코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경관과 철새를 테마로 한 시설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장소 만들기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010년 강원도 철원군 국토환경 시범사업 내용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

경남 진해에서 진행된 호계천 주변 네트워크 사업은 외국인 상가 건축물의 전면 공간을 개선하고 이국적 이미지가 연출되는 가로환경을 새롭게 창출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단순한 간판개선사업이 아닌 외국인들의 생활중심지를 특화한 특성적인 상업 가로로의 조성으로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010년 경상남도 진해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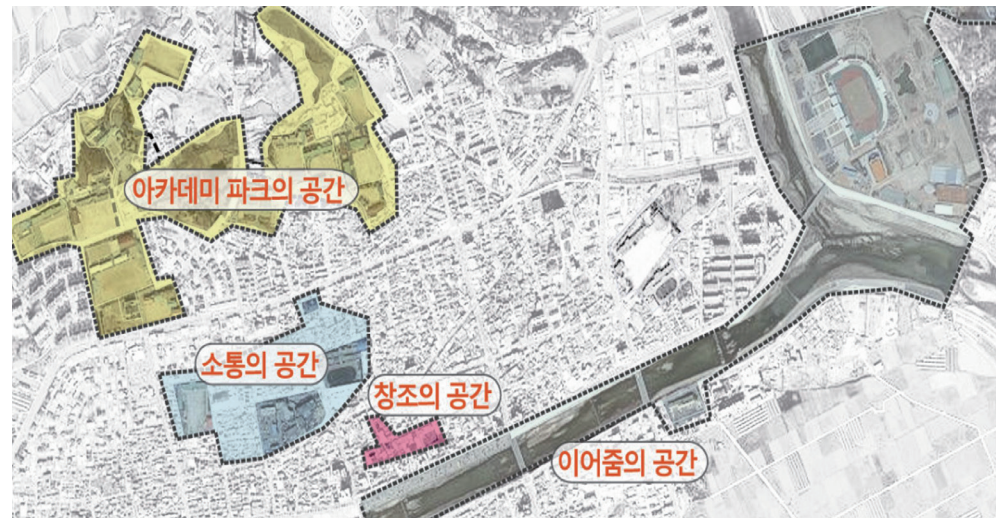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경남 거창,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경남 거창에서는 16개 학교와 18개의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권역별로 테마를 설정(아카데미 파크의 공간, 소통의 공간, 창조의 공간, 이어쥬의 공간)하여 학교 간의 공간적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후보지는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업 중심이 되는 시가지와 휴게공간 등의 기능적 배분이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연계하기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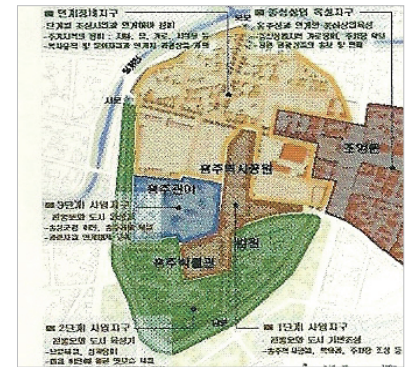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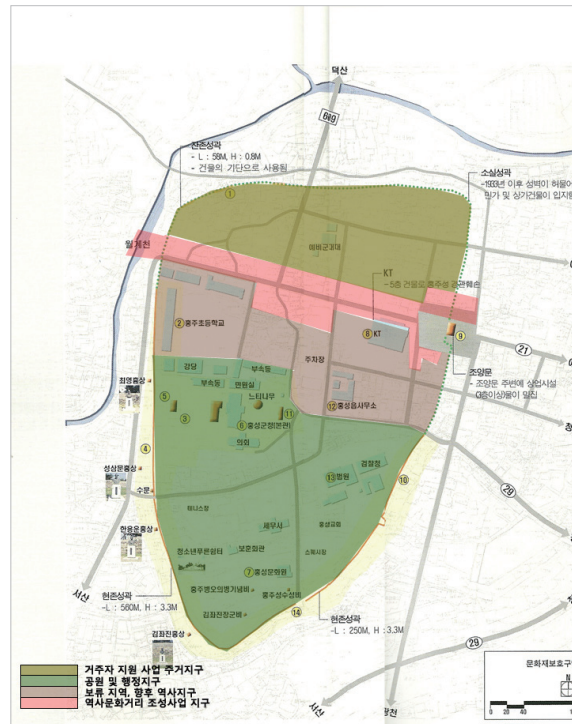
2011년 경상남도 거창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내용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

충남 홍성에서는 역사도시로서의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홍주성 안 대지를 전통마을지구, 공원 및 행정지구, 역사문화거리지구 및 기타 유보지역으로 분할하고 도심 중요 축인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후보지는 충청도청이 이전하는 내포 신도시와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생길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코자 홍성의 도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쇠락한 구시가지지를 활성화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충청남도 홍성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 광양에서는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 플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단계의 사업계획 구상하였다.

1단계 사업으로는 실개천 조성 및 보행 관련 기선사업, 경전선 복선화 사업, 기능을 상실한 구 역사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진입 가로 경관정비사업 등이며,

2단계 사업으로는 칠성광장을 서울대 연습림을 활용한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행공간 조성, 광양읍성터를 정점으로 복잡하게 얹힌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이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광양향교 주변을 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원칙으로 한 주변정비 및 휴식공간조성, 원도심 내 우범 지역화 되어가는 폐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후보지는 광양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주거환경이 낙후한 곳으로 광양읍 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역사문화유산을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으로 통합하여 문화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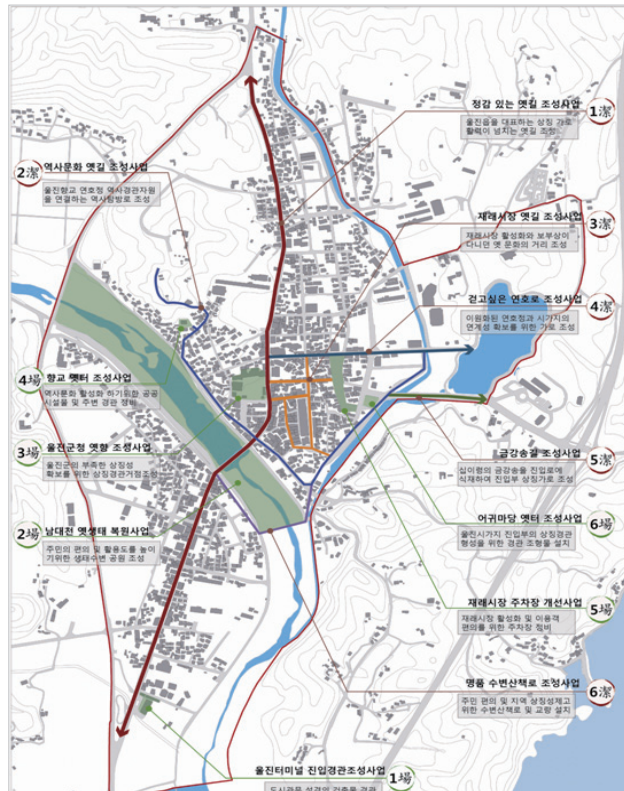
전남 광양시 사업구상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에서는 중심상권 일대를 중심으로 가로 및 공공공간을 특성화하고 활력 넘치는 테마거리를 조성을 통해 울진 보부상 옛터를 재조명하기 위한 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이 진행되었다.

울진군 내에 위치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거점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십이령 보부상길을 만들기 위한 길과 장소를 울진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결(潔)과 장(場)을 중심으로 울진의 옛향을 만들어 내었다.

후보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일원 1.7km²로 ‘십이령 보부상길’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5일장 재래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경관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 “있는 그대로”의 문화와 품격있는 도시디자인을 접목하여 옛터로의 울진읍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경북 울진 거점사업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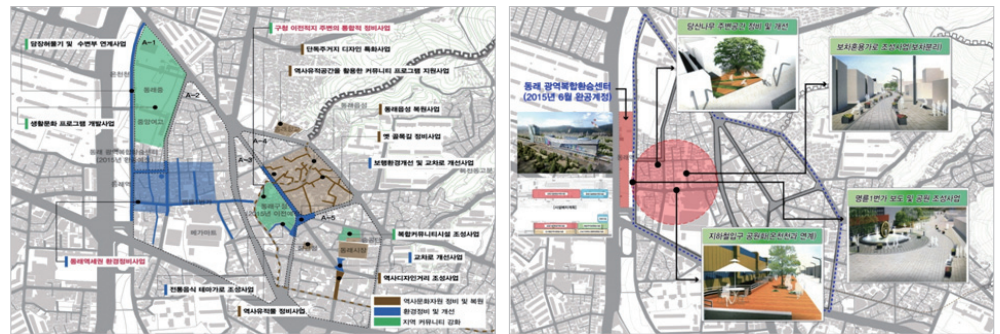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부산에서는 고도심 지역인 동래구 명륜동·수안동 주변 0.7km² 일대에 대하여 동래구청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동래재창조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복원사업’과 ‘개발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정비사업’, ‘커뮤니티시설 조성 및 정비, 이용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래읍성 복원사업, 옛 전통가로 조성사업, 옛 전통가도가 유지된 도심 속 단독주거지 디자인 특화사업, 동래시장 역사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역사 유적물 정비 및 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동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 환경정비사업, 전통음식 테마가로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구청사 이전부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동래재래시장 및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개발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및 정비, 이용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구청사 이전부지를 활용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송공단 공영주차장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학교시설 커뮤니티 이용공간 계획수립사업, 역사유적 공간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부산 동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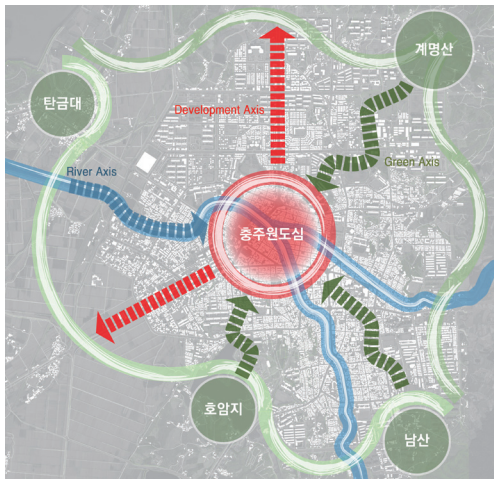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에서는 도심 일원 및 도시활성화권역을 일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 고을인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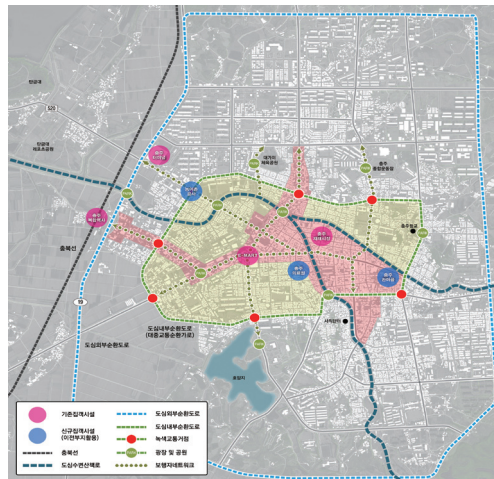
녹지축과 수변축, 개발축 설정을 통한 도시골격을 설정하고, 대중교통 중심체계구축 및 수변 산책로와 보행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 교통체계를 구상하였으며, 주요거점시설과 상징가로, 어메니티 가로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가로 등 특화가로를 구상하였다.

충주시 도심 재탄생 및 활성화 방안으로 단계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전략, 통합적 재생기술 도입을 통한 기반조성, 공공시설 이전지 활용방안, 테마가로 조성을 통한 집객도심 활성화, 지역 스토리텔링개발을 통한 역사문화도심 활성화, 녹색순환도로망 조성 및 충주천 활용을 통한 녹색도심 활성화, NPO 기구 운영, 민간사업자 참여유치 전략,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생활도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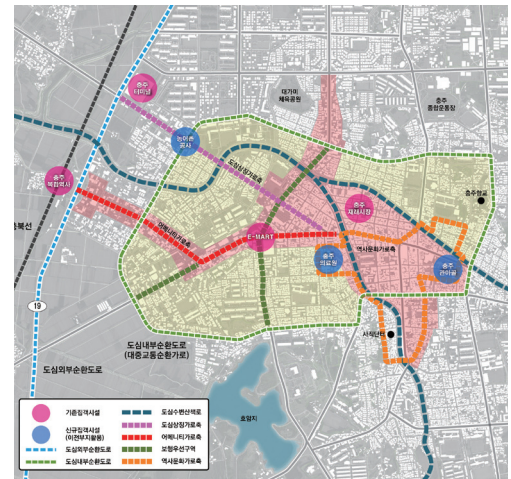
충주시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시의 노후한 상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여 도심 쇠퇴의 내부요인을 진단하고 치유함으로써, 역사자원·수변자원·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집객도시로서의 가치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시골격 축 구상



녹색교통체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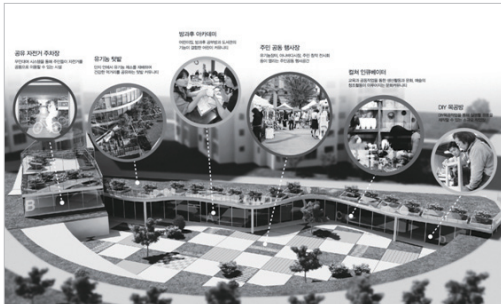
주요거점 및 특화가로 구상

충북 충주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구상도

건축·도시환경 개선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



단지 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 조성 예시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특화 추진

기존의 공공주택공급 정책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수준 높은 주거문화 차원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이 갖는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에 두고 지속가능한 신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뉴하우징 운동(New Housing Movement)’의 하나로 ‘보금자리주택의 품격향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명품디자인을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도심 및 도시근교의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였다.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획일적 규제를 일부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문화 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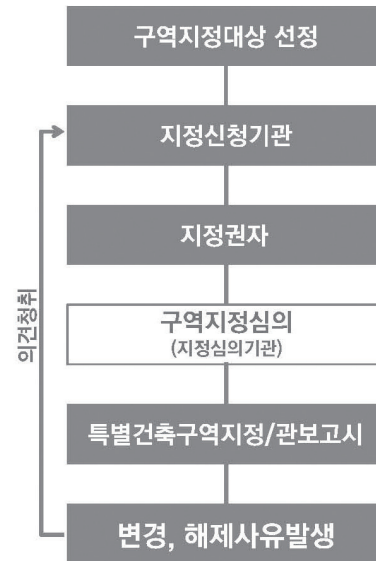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고 새로운 건축기술의 도입 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도시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필요할 때 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이 구역지역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가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이 구역지정목적과의 부합성과 특례적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공관리에 설계차가 참여하여 설계내용과 시공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절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개정은 학교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관련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과 지역민의 요구와 무관한 개별시설사업단위로 학교시설 복잡화 사업이 진행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시설의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시설의 지역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과정을 보완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발전방향과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의 주요 공공건축물의 일부로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관리·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권한을 부담하게 하고, 커뮤니티시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도록 하여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관여하는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장·학생·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추가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주요 사례로 학교시설의 선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사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출처]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http://elc.sacheon.go.kr>)

공공건축상 시상

‘공공건축상’은 공공발주자의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부터는 기존 ‘좋은 건설 발주자 상’이라고 불리던 시상 명칭을 ‘공공건축상’으로 변경하고, 수상자를 기관장에서 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변경하였다.

‘공공건축상’ 수상작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5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수상작은 공공발주자의 혁신적 노력의 성과물을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한 사례집 발간 및 동판을 수여 받게 된다.

지속적인 ‘공공건축상’ 시상을 통하여 공공발주자의 역할증진과 선도적 노력을 유도하고, 보다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상 : 경기고양 프른솔 경로당



대통령상 : 대전서구 목마도서관



국토해양부장관상 : 경기고양 고양길벚가게



국토해양부장관상 : 부산남구 서구문화원 주차장



국토해양부장관상 : 서울인천 북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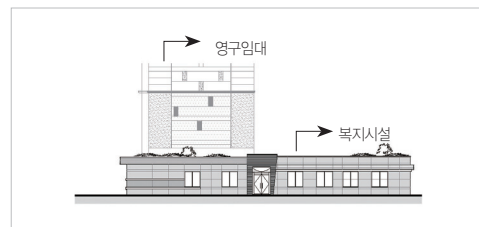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을 건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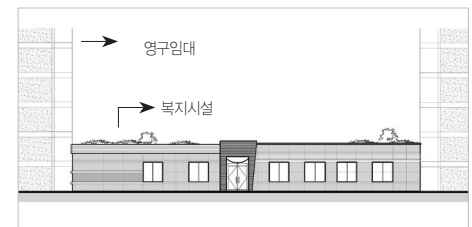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게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과 도시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립된 주거복지동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형



연결형

주거복지동 건립 방식(예시)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제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시설에 대비한 정비지체, 지역 산업의 쇠퇴, 지역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도시쇠퇴 문제에 봉착해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수익성 체계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재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도 지원사업과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공고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였다.

본 특별법은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개편을 위하여 국토부, 서울시, LH 공동 발주, 국토학회, 설계학회, 주택학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방식 개선

2011년 2월 도시개발법이 개정 공표되면서 하위 규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대한 개정안과 녹색·저탄소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기준이 필요해졌으며,

입체환지 확대적용·결합개발과 순환개발의 신규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규정의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도화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효성이 낮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논란이 많은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중 입법 예고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자료,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의 의견, 조합 관계자의 면접조사, 공청회, 워크숍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도시개발 사업방식을 개선하였다.

환지부문의 경우 사업방식별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입체환지 절차를 마련하고, 권리산정(비례식) 기본산식 개발 및 입체환지 할당기준과 체비지(주택 등)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타 필수적인 사항 위주로 환지제도를 개정하고 환지등기규칙을 제정하였다.

패키지(결합개발) 부문에서는 서로 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개발과 환경정비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 순환개발 부문에서는 당해 사업대상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를 산정하여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의 종류 및 평형에 대한 기준에 대해 시행주체가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녹색 도시 부분에서는 법규 개정에 따른 녹색 도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계획의 실제 적용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도시개발 사업방식의 부문별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각종 인허가 시 명확한 행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절차를 통한 변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논란이 많은 조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를 근거로 개정하여 후속입법절차 및 민원 대응에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해피하우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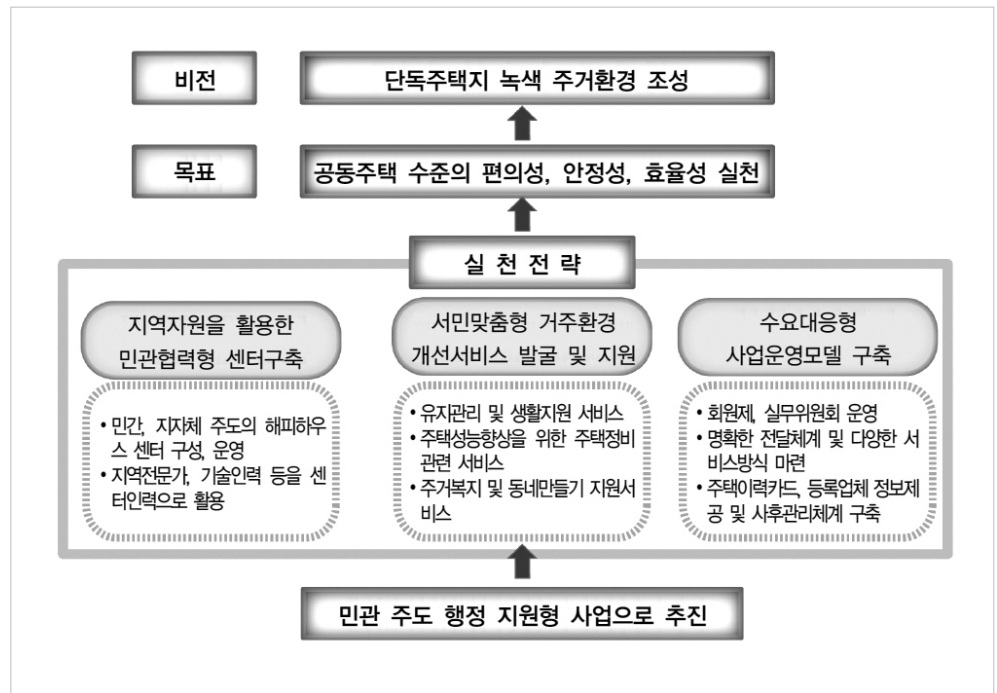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의 양적 확대와 개발의 효율성 추구로 인해 주거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무분별한 아파트건립으로 인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문제를 초래하였다.

국가건축위원회는 출범 이후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주거문화 개혁으로 두고 ‘뉴하우징운동(New Housing Movement)’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해피하우스 정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편리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리비용의 절감, 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주택에너지효율 서비스가 낮은 단독주택의 낮은 단열수준과 창호성능을 고려하여 적외선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주택에너지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누수·누전 등 긴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리업무, 개보수와 같은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비롯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폐·공간 철거사업 등 주거복지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해피하우스 사업의 총괄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였으며, 해피하우스 지역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11년도에 3개의 시범사업이 완료되었고,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기존의 사업이 행정주도의 사업추진으로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중이다.



해피하우스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오늘날 개발의 급류 속에서 도시의 독특한 개성은 자주 무시된다. 시장의 세계화와 병행하여 '건축적 표현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형태가 경시되고 있다.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이자 한 민족의 지적, 문화적 삶을 위한 독특한 자극이 있는 곳이다. 도시는 그 자체가 건축된 역사이며, 어떤 사회나 국가, 지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나타낸다. 건물, 가로, 도로, 광장, 공원을 통해 도시는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건전한 개발을 통해서 도시는 자신의 값진 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산과 견줄 만큼 훌륭한 현대적 건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Hall, P. and Pfeiffer, U.(2005), '미래의 도시 : 21세기 도시의 과제 및 대응전략'. 임찬호, 구자훈 역, 도서출판 한울



【 건축 정책 】

2010 - 2012



건축 · 도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성과

녹색건축 · 도시 구현

건축 · 도시산업의 고도화

녹색건축·도시 구현

탄소 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마을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실행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원 순환 형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남 거창군과 경기도 포천시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한 양기·음기 마을은 딸기, 화훼 등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마을 내 농업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의 난방열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의 자원 순환 형 마을로 조성하였다.

혐기소화 에너지 방식을 사용하여 병합 및 소화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액비 생산 및 폐열을 활용한 온수로 비닐하우스 및 주민 편의시설에 활용하고 있으며, 액비사업 및 폐자원 수거 등을 사업화하여 사회적 기업화를 검토 중이다.

•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영송마을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우분을 건조하여 만든 고체연료를 가정의 보일러 또는 비닐하우스의 열풍기의 연료로 공급하여 자원 순환형 마을로 조성하였다.

혐기소화 고형분 및 축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일반 가정 및 농가에 축분 연료용 보일러 및 열풍기 설치를 지원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시설 운영 주체로서 영평·영송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완료 및 인근 미군 사격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녹색 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우수녹색 도시 구성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 초기에 녹색 기반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텐시브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녹색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적용기준은 10만 이상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녹색계획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녹색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통합하여 설정한 녹색 지표별 평가기준 및 이행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녹색개발사업 시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업에서는 종합한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 도시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녹색 사업에는 행정규제 완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녹색요소 반영 정도에 비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

친환경 생활공간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누구나 쉽게 찾아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보여행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마을 녹색 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우리 마을 녹색 길 공모사업'을 통해 녹색길 총 45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환경이 어우러진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녹색 길을 조성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80개의 녹색 길 총 974km가 조성되었으며, 노선 선정은 주민참여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고, 유형별로 지역 공간체험형 10개, 수변공간활용형 16개, 도심 문화생활형 6개, 명상·사색형 12개, 기타 1개로 구분하여 조성하였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미 조성된 녹색 길 중 경관이 수려한 '녹색 길 Best 10'을 선정하여 녹색길 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 길 지킴이단'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노면관리, 순찰활동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여 녹색 길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철원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4.8km)



정읍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17.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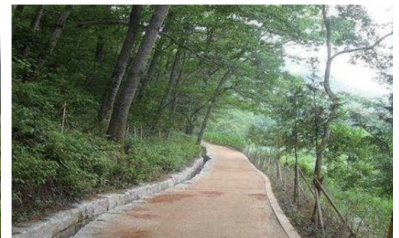
충주 비내길(17km)



양평 두물머리 물래길 (15km)



울산 영남알프스 하늘 역사길 (29.7km)



광주 무등산 자락 다님길 (13km)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으로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시킨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기·가스·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녹색 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및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 시 반영하게 하고,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다.



Cooper Union Academy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지어진 건물로, 이중외피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건축물에 적용했으며, 2010년에 LEED 인증 Platinum등급을 받았다.
[출처] <http://inhabitat.com/cooper-union-inhabitat-tours-nycs-first-leed-platinum-academy/>



Bank of America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지어진 건물로, 현존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초고층 건물이다. 지역자재 및 재활용 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및 폐수를 재활용하여 수자원 절약에 앞장섰다. 2010년에 LEED 인증 Platinum 등급을 받았다.
[출처] <http://www.ecofriend.com/stunning-green-buildings-exis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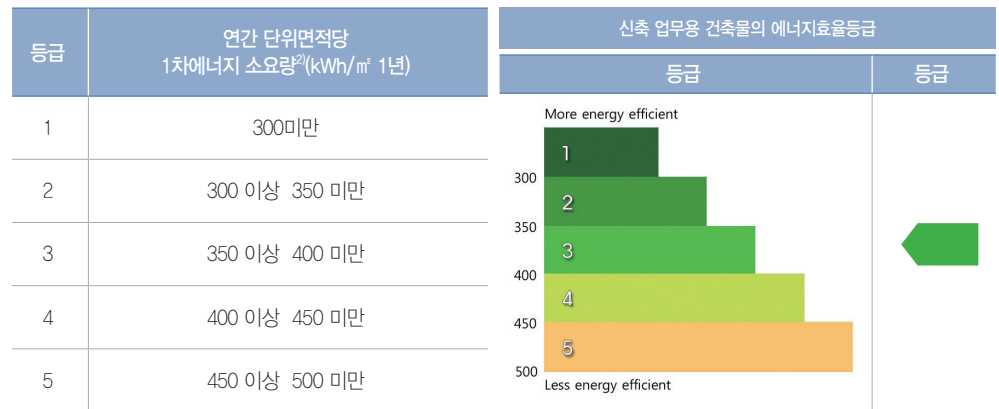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설계기준 강화

기존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과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 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유도 효과를 높였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세부지도 운영 및 심의를 하고, 운영 실무에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중 실질적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2) 1차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범도입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에는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총량제도를 도입하였다.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고,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규정은 인증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인증기준이 고시된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대상도 난방에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에 신축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개로 확대하고, 인증등급의 경우도 공공주택, 업무용 건축물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대상 및 평가기준을 확대하였다.

인증 절차는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 건축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검토를 받아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절차를 마무리한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부 출연 기관 중 인증업무를 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 또는 세부제도 운영과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 실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로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에 의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증대상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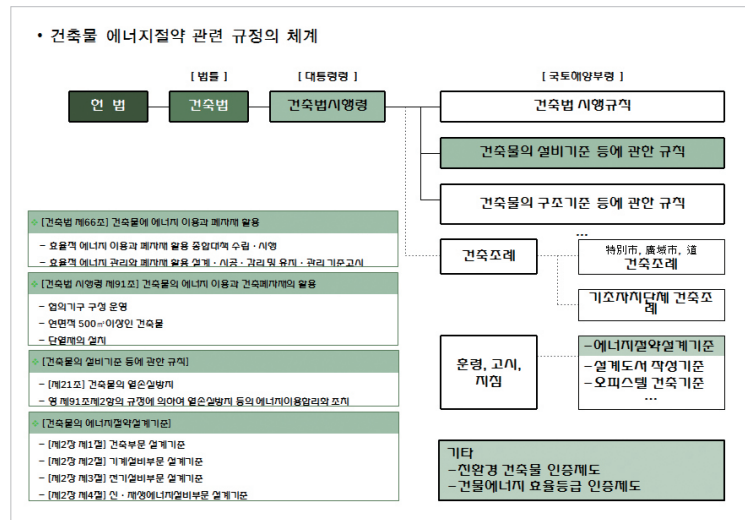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보급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기준, 평가방안, 설계, 시공 지침 및 기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2020년까지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31%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 및 설계·시공지침마련과 보급에 관한 사업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가이드북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단열기준 완화 및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확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실시하고 신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2012년도에 에너지 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주택 100만 호 그린홈화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54%로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이 수록된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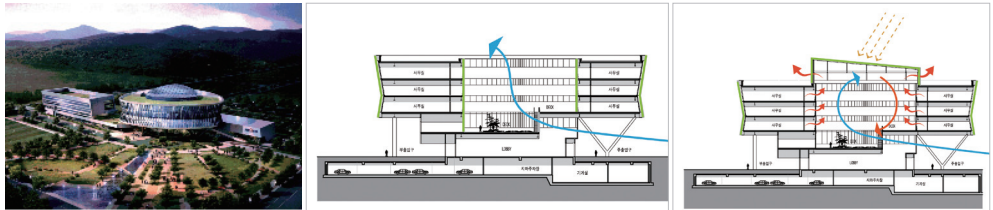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부하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태환경부지 조성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지반침투 방식의 빗물관리와 도로를 제외한 공간을 투수성공간계획으로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경녹화 계획으로 탄소 흡수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고 옥상 및 벽면과 테라스 녹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지 주변 요건 및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주변기후여건 분석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배치계획과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평면을 계획하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혁신도시 공공청사 시범사업 _ (한국전기안전공사) atrium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감계획 개념도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산업인력 양성사업

본 사업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산업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에너지 소비율 증가를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대학 등을 활용한 설계·설비·시공 등 건축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간 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취업 관련 행사와 이론 및 현장견학과 실험실습이 이루어진다.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되고, 우수수료자 취업지원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며,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2~4년제 건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기졸업자와 건축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실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그린홈 보급자리주택 공급

그린홈 보급자리 주택 공급 사업은 실험·홍보용 주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영국의 베드제드와 같은 주민이 거주하는 실증단지 조성으로 그린홈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그린홈 주택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더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민간의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설계 디자인을 적용하여 그린홈 주택을 건설하고 그린홈 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보조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통해 친환경 주택건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52세대는 기업의 주도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그린홈 기술의 상업화 모델을 구현하고 초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 1기업이 그린홈 단독주택을 1~5호씩 건설하고 성능평가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식의 사업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에너지의 70% 절감수준과 플러스에너지 10%를 목표로 하였다.

그린홈 보급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국내 그린홈 건축의 기술경쟁력을 홍보하고 해외 주택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는 홍보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그린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그린홈 보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홍덕지구 조감도 및 배치도

에너지소비량 인터넷 공개

2010년 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난방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되었다.

주택법 제45조 1항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 인터넷으로 공개(개정 2005.3.8, 2008.11.5, 2010.7.6)
주택법 제45조 2항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택법 제45조 4항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개정 2010.4.5)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관리비검색] 단지별검색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비항목 안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단지 기본정보

단지명	개포광남아파트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02)572-4400	단지 주소	서울 강남구 개포1동 649번지
연면적	55,405㎡	관리비 부과면적	94,974㎡
세대수	678 세대	동수	9
연적별 세대수			

관리비항목은 아래 5가지 분류의 합계 금액으로 기본조회됩니다.

(금액단위: 원, 송신기수발생량 단위: kg)

부과년월 / 발생년월	공통관리비 (송금액)	개별사용료 (송금액)	강기수선충당금 (송금액)	갑수입 송금액 (단수적 금액)	CO ₂ 발생량 (송발생량)
2010-01 / 2009-12	930 (88,341,110)	2,277 (22,158,170)	115 (10,886,400)	0 (0)	0.00 (0.00)
2010-02 / 2010-01	908 (231,900)				0.00 (0.00)

Click~!!

해당 항목의 값을 클릭하게되면 더욱 세분화된 항목값 조회가 하단에 조회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관리비 검색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그린스쿨 시범사업

그린스쿨 시범사업은 과거 획일적 디자인의 학교시설을 친환경 디자인 기법의 적용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린스쿨 시범사업 학교 선정의 기준은 주변 학교와 비교하여 시설격차가 심하게 노후한 학교이거나 비교적 건축구조가 안전하여 전면 개축 보다는 개·보수가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또는, 최근 5년간 해당 학교의 시설투자가 적은 학교, 수업대책에 문제가 없는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린스쿨 조성에 적용된 친환경 기법으로는 LED 조명등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천창 텍스교체, 친환경 페인트 사용 등의 친환경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한 그린 스쿨 조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옥상공원, 생태연못, 휴게 공간, 학교 숲 등 자연 친화적인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열에너지 이용을 통해 수자원과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였다.

그린스쿨 시범사업을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그린스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학교를 확정된 후 56개소의 그린스쿨사업 시설공사 추진을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28개소의 그린스쿨 시설공사 추진을 추가로 완료한 상태이다.



그린스쿨 시범사업 예시조감도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 사업(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 사업은 시범도시 조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 도시를 국제적 명품도시로 브랜드화하고 국제사회에 녹색성장 선도국 이미지를 각인시켜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도입으로 신 성장 동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녹색거리, 녹색광장, 녹색 생활 체험관 설립과 같은 녹색 선도사업과 습지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LED 가로등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빗물 재이용 시스템과 같은 공공 또는 공용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녹색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녹색 기술 테마파크, 녹색 비즈니스단지, 제드빌리지 조성 등 녹색기술·산업테스트베드화와 민자 유치 활성화 사업과 같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된 강릉시의 사업지 규모는 1.8km²이며, 친환경토지이용, 녹색 교통, 자연생태, 에너지, 물·자원순환, 녹색 관광, 생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녹색체험과 볼거리 등이 많은 신규 도시조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이 증대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국민 교육·홍보·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과 녹색기술 활용을 통한 도시가치 상승을 기대해본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 조감도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건축사 역량 강화

국제 수준에 맞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정으로 건축사 시험제도와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실무교육을 강화 및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강화하였다.

UIA 권고기준에 의한 건축사 자격 기준은 5년 이상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등록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예비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 마련도 계획 중에 있으며,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고자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정례화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UIA 총회를 기점으로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같은 제도의 시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에 대한 적절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발주자의 요청으로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건축사 설계기준에 새롭게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 인증설계 및 BIM 설계이며,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인증설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 설계의 장려로 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본 시범사업은 현재 실적과 규모 위주의 평가로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자를 정하는 선정방법으로 인해 신진건축사의 공공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 시범사업으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건축 산업의 발전 위하여 젊고 역량 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신진건축사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국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신진건축사 육성 정책 및 설계공모의 응모자격에 제한을 둬으로써, 기성 건축사 위주 공공건축시장의 차별을 시정하고,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진행 중 공개발표, 시상, 당선작 전시 등 유능한 신진건축사 발굴·홍보를 위한 시상과 전시를 확대하고,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중 만 45세 이하,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를 응모자격을 두어 2단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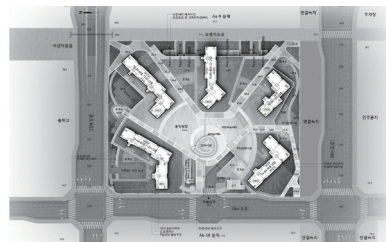
2012년도 추진된 시범사업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신진건축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청라국제도시 제1도서관



영종국제도시 제2도서관



나사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공공임대주택



한국수자원공사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건축물 녹화 설계는 옥상·벽면 등에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열섬효과를 저감시키는 등 도시홍수예방, 강우 수질 정화, 소음경감과 같은 다양한 효과로 그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건축물 녹화에 필요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이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구조 안전성 검토 및 방수·방근 조치와 같은 꼭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공적인 건축물의 옥상·벽면 등 녹화 설계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이 명시되어있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건축물 녹화 기준을 옥상녹화, 벽면녹화, 실내녹화 파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미 조성된 건축물 부분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녹화시설관리와 식재관리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 녹화 설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녹화공간을 조성 및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녹화설계기준의 활용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지원하는 건축물 녹화 사업의 공통적인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 녹화 설계 사례_ 그린위빙 클럽하우스(설계:유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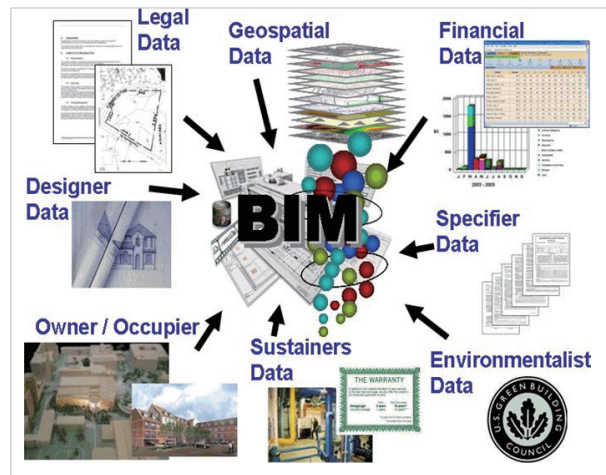
[출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www.auric.or.kr) - 건축물 >현대건축물

건축설계 BIM 도입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물의 전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의 경우 대형설계사들은 BIM 도입을 검토·추진 중이며, 소규모 설계사들은 현상설계 단계에서부터 BIM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양주 회천지구에 BIM을 도입·적용하였고,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단위모델에 대한 3차원 모델링과 도면 산출에 활용하였다. 정부는 세종시를 비롯한 국책 건설 및 토목사업분야에 BIM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BIM 도입·적용을 위한 노력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제 건축설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BIM 작성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으며, 3D 체계를 구축한 BIM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건축·도시·조경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단계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BIM 적용 가능 분야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 표준화 연구개발

2010년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 표준화 연구개발 R&D 연구를 추진하여 2011년도에 종료하였다. 2012년도에는 당초 계획을 포함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2014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에 있다.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 3월 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허가 시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지역주민과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과 주민대피소 지정·관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에서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을 허가 시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태를 중앙본부장이 평가·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부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기존의 「지진재해대책법」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지진재해 훈련 및 교육의 실시와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로 지진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 건축물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부산 오피스텔 화재(2010년 10월 1일)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2011년 3월 11일)을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 향상과 건축물의 화재·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의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이 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이 개정되었다.

피난안전 구역의 설치 대상 확대, 피난용 승강기설치, 외벽 마감재 난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특별피난계단설치기준 보완, 종합방재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30층에서 49층까지의 건물로 확대 적용하고,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도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계획할 수 있게 하였다.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보완 및 종합방재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사건’

[출처]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14520§ion=sc72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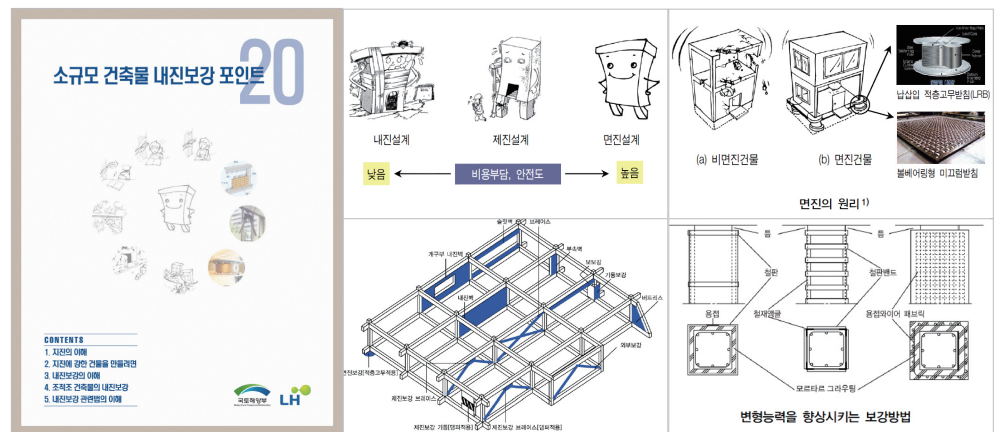
지금까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구조 설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확대에 따라 소규모건축물 역시 지진,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2010년 ‘소규모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을 포함한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총칙과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구조, 조적식 구조, 강구조, 기초, 지하구조, 각 부분별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물로 건축용도, 설계하중, 건축구조의 형상에 따른 적용 제한을 두었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은 내진 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 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과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진의 이해, 지진에 강한 건물, 내진보강의 이해 등 20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20

건축 · 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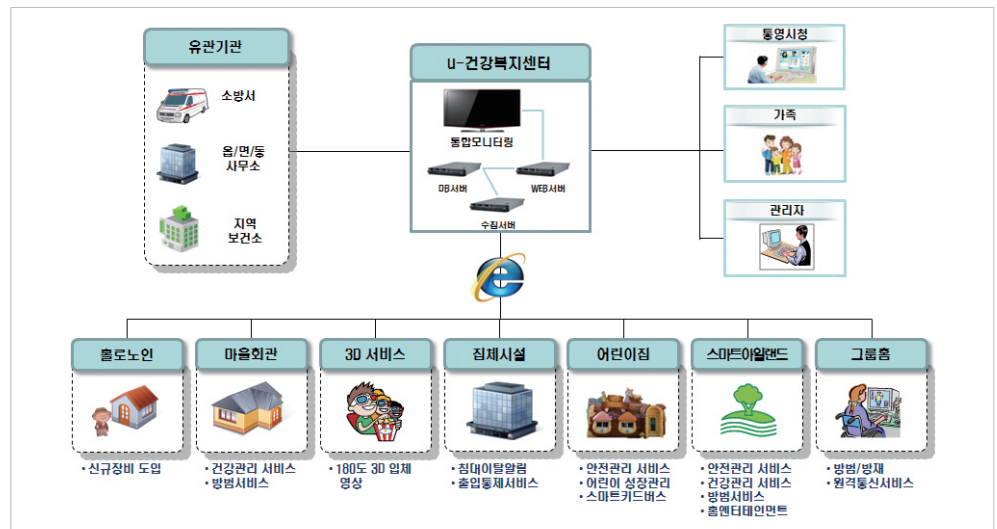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구축(경남)

지능형 홈 산업의 조기 활성화 및 융·복합 신산업의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경남 지역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총 사업비는 9,066백만 원으로 1단계 사업(2009년 9월~2011년 2월), 2단계 사업(2011년 3월~2013년 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마을회관, 헬스케어서비스, 방범·방재서비스, 지능형 홈 서비스시스템, U-Health 센터 및 홍보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이 있다.

2009년도는 MOU체결 및 마켓플레이스 개발촉진사업(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는 U-Town 지능형 홈 테스트베드 구축(7개 서비스)사업과 U-Town 지능형 홈 테스트베드 구축(7개 서비스)사업을 2011년도는 특화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련 세부 사업들은 창원시(전력모니터링 59개소), 진주시(아파트 65개소, 마을회관 23개소, 도시통합 관제 7개소), 양산시(마을회관 87개소, 에너지 절감시설 1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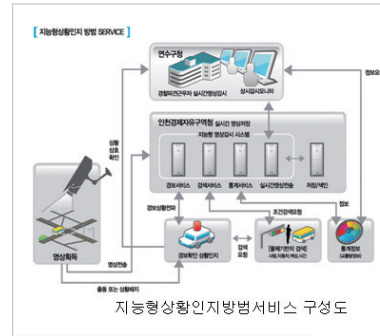


통영시 시스템 구축 계획(구축 기간 : 2012. 5 ~ 2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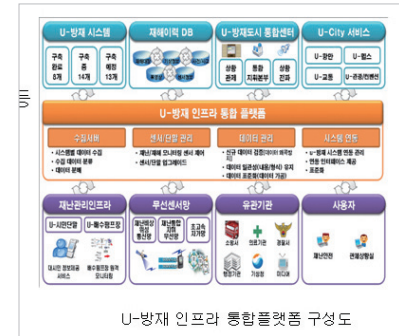
U-City 시범도시 선정

U-City와 관련한 상용화된 신기술 또는 R&D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도시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핵심기술을 보급 확대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범도시는 2009년도에 3곳, 2010년에 5곳, 2011년에 7곳, 2012년에 6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2012년까지 총 1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지능형상황인지방법서비스



U-방재 인프라 통합플랫폼

2009년도 사업성과 구성도



맞춤형 U-Mobile 정보제공 서비스

재난관리 무선인프라망 구축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2010년도 사업성과 구성도



맞춤형 U-Mobile 정보제공 서비스

재난관리 무선인프라망 구축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도시는 기억, 욕망, 기호 등 수많은 것들의 총체이다. 도시는 경제학 서적에서 설명하듯 교환의 장소이다. 하지만 이때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언어, 욕망, 추억들도 교환될 수가 있다. 내 책의 이야기들은 계속 형태를 취했다가 사라지는, 불행한 도시 속에 숨어있는 행복한 도시들의 이미지 위에서 펼쳐진다.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2007), (p221)



【 건축 정책 】
2010 - 2012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북촌한옥마을



서향향토문화마을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한옥 발전전략 수립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이었던 한옥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멸실되었으나, 최근 현대화된 한옥설비로 품격 있는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친환경 웰빙 주택으로서 그 선호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한옥의 활성화로 목재 가공 산업을 비롯한 관련 녹색산업분야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신 한옥 플랜의 기본방향인 국가품격 향상과 녹색성장 선도를 위해 값싸고 편리한 한옥을 개발하여 농촌 지역에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정서가 사라진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옥의 보급과 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과 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으로 네 가지 한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어촌 지역의 한옥 보급을 시행하였다.

한옥 신축 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 및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 도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좁고 불편하며 비싼 한옥’이라는 기존 한옥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렴하고 살기 좋은 신 한옥 모델을 구상하고, 한옥의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성능·시공기술 개발을 통해 R&D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건축비를 최대 40% 절감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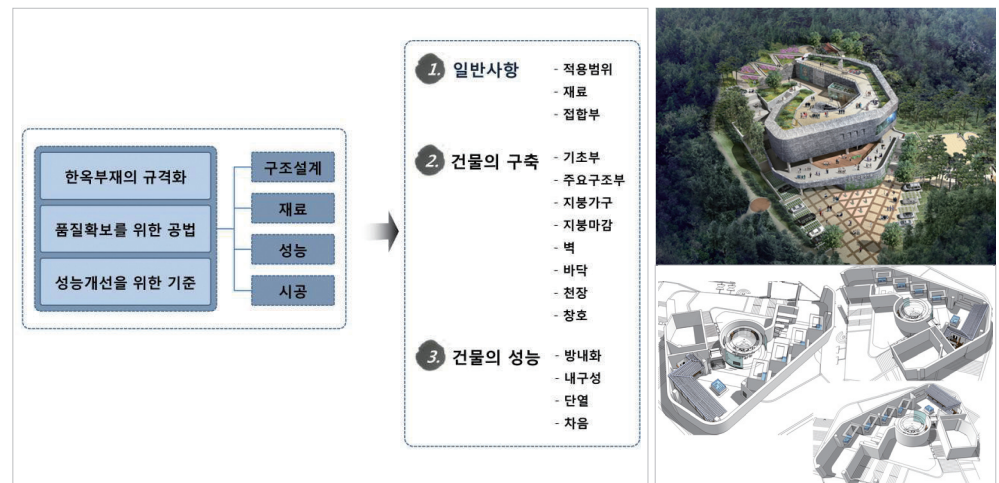
한옥 공공건축물 예산 및 기술 지원

한옥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 건축사업, 건축물 일부에 한옥요소를 접목한 한옥디자인 사업 중 홍보 효과가 큰 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의 지자체가 16개 한옥 사업을 응모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은평박물관 內 한옥 전시장 조성사업’,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조성사업’, ‘전통차(茶)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총 3개의 사업이며, 총 5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다.

또한, 한옥 건축의 기술기준 개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함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와 성능 개선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부재의 규격화, 재료의 품질 등 개선된 성능 확보를 위해 신한옥의 구법에 맞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신한옥의 기술기준은 크게 구조설계, 재료, 성능, 시공으로 분류하고 내용은 일반사항과 선물의 구축 그리고 건물의 성능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신한옥의 기술기준 구성 개념

(서울시 은평구청)
은평박물관 內 한옥전시장 조성 사업



‘국가한옥센터’로고

국가한옥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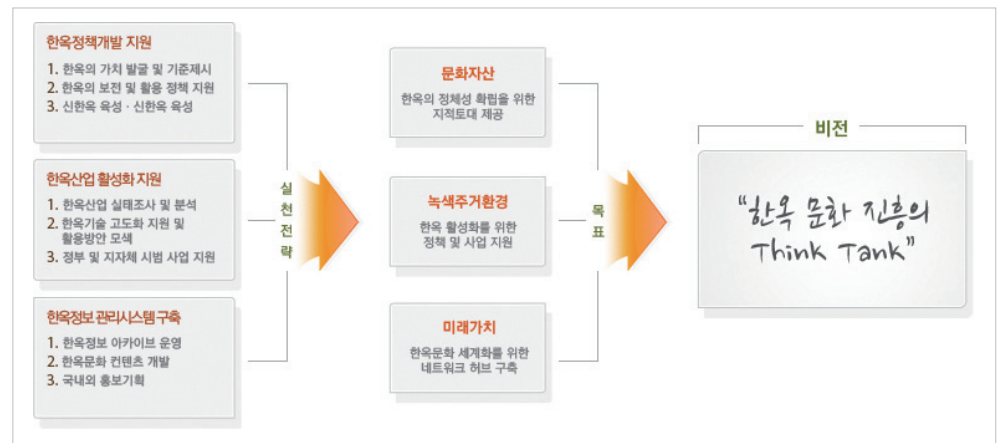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한옥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함으로써 한옥을 널리 알리고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문화자산인 한옥을 통한 녹색 주거환경 조성하고 한옥의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옥정책개발의 일환인 한옥의 보전 및 활용에 관련한 사업과 신규 한옥 보급·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와 한옥 산업화 및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한옥 생산방식을 산업화하고 친환경적 기술로 한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스타일의 공공건축 보급량을 늘려 마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도 모색 중이다.

2011년도에는 한옥 정책 지원 연구를 통해 한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발의를 지원하였으며, 한옥 산업화 지원연구를 통해 한옥 산업·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 R&D 사업단, 전라남도 등 한옥정책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지속적인 한옥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한옥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한옥 홍보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정책과 연계하여 한옥 정보 관련 대국민서비스인 국가한옥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 방향

문화역서울 284는?

'문화역서울 284'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역사적 · 공간적 · 도시적 상징성을 결합해 탄생했으며,
옛 서울역의 사적번호(284호)와 문화공간이라는 콘셉트 간의
접목을 의미한다.



개관전 포스터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문화역서울 284 사업

2004년 1월 KTX 서울역 신역사 개통 이후 기차역의 기능이 소멸된 구서울역사(사적 284호)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2007년 구서울역사의 소유권 이전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11년 준공이 완료되어 2012년 4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문화역 서울 284 사업은 물리적으로 1925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기존 사진 자료에 기초해 복원하고, 내용적으로는 서울역과 함께 한 지난 80여 년 우리네 삶의 기억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관, 다목적 전시실, 공연장 프로젝트 카페 등이 있으며, 개관전인 '오래된 미래'는 근현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구서울역을 통해 한국 근현대 일상의 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건축가와 예술가, 디자이너가 모여 작품전과 강연을 펼쳤다.

현재 문화역 서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 디자인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노후한 유휴시설인 서울역을 준공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서울역의 역사성 및 지역적 특색과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장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철도역사로 문화 자산화 하였다.



문화역서울 284 전경



개관전 오래된 미래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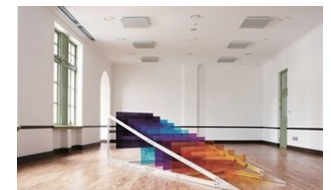
복원 전시실



'승객석'전시



'불'전시



'수상한 승객들'전시

유희시설을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방안

•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 벨트 조성사업

본 사업은 지역근대산업유산을 개발에 의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예술·관광 진흥의 관점에서의 도심재생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로 근대산업유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한 리모델링 사업과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유산의 활용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능동적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언론의 홍보와 중학교 교과서 수록을 통한 노력으로 해당 사업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방안 연구 수행

최근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건축문화 관련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행사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건축문화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4가지 중심전략을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건축문화 행사의 통합으로 국내 건축문화 증진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가지 중심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건축문화행사 간 통합과 논의의 활성화가 미흡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 중심전략은 단순 규모 확장식의 통합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참여 대상 이해관계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행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건축문화행사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건축의 날(9월)’, ‘G-20 정상회의(11월)’에 행해질 행사들의 통합 추진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현행 건축문화 행사의 대다수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여 축제형 행사 기획으로 대국민 문화향유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건축문화 행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존의 수상식과 공모전, 전시회 등 일률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탈피하기 위한 테마 프로젝트 경쟁 등의 기획으로 건축문화행사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행사의 통합 발전을 통해 국가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경제적으로 직간접적 소득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내 건축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건축문화의 홍보로 유명 건축물에 대한 관광·진흥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IA 2017 Seoul 포스터

건축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우리나라의 근대건축과 근대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건축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국내에서 주관하는 건축도시 관련 국제회의인 국제건축가(사)연합단체 UIA 총회 및 도코모모 국제회의 등을 주최하게 되었다.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어 전 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가를 대표하는 유일의 국제건축가(사) 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며,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건축가와 15,000여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2017년에는 서울이 싱가포르와 멕시코를 제치고 제26회 세계건축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도코모모(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는 근대건축에 관한 세계적인 학자와 이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세계 대회로 2012년 현재 56개국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며 2014년 제13회 도코모모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가 확정되었다.

2014년 국제 콘퍼런스 서울 대회의 중심 주제는 “충돌과 확장”(Expansion and Conflict)으로 한국 모더니즘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우리 근대문화유산의 독창성과 건축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초건축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교재 주요 내용 개발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과 공관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되면서,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욕구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재와 프로그램은 건축법 제7조, 제8조, 제9조 기초건축에서의 생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바탕을 두고 학교와 사회교육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요교재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으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우리의 국토도시공간을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꾸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토도시공간을 구현하여 평가·시상함으로써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주제가 있는 국토, 볼거리가 있는 도시’를 목표로 대한민국 국토·도시의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도시 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공모방식은 공개공모방식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공공간·도시단지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특별부문을 따로 구성하여 친인간·친환경·심미성·지역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총 2단계에 걸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2012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수상작

수상	부문	수상기관 및 기업	수상작
대상 (국무총리상)	도시단지	강원 태백시 상장동주민센터	전설이 흐르고 추억이 그려지는 상장동 이야기마을
	특별부문	쌍용건설	전북 임실 운암대교
최우수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공공공간	서울 관악구	인현시장
	기반시설	강원 양양군	남대문 생태공원
	도시단지	경기 양주시	주민이 만들어 가는 볼거리 가득한 스토리 빌리지
	특별부문	전북 익산시	모현대교
우수상 (기관장상)	공공공간	대구 중구	동성로
	기반시설	대전 유성구	유성천
	도시단지	광주 북구	임동마을
	특별부문	GS건설	인천 백석대교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한 경관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독창성과 지역성이 존중되는 경관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우수 경관에 대한 지자체·민간의 인식 개선하고자 한다.

관련 공무원과 개인 및 시민단체의 공로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경관을 형성하는 주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이고 전 국민적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모대상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경관으로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심사방법은 학계·업계 등 경관분야 전문가 7인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2011-2012대한민국경관대상 수상작

구분		2011	2012
대상		화성 역사문화경관 개선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취약지 개선사업(광주)
최우수상	시가지경관	북한산자락 우이동 주민이 주도한 우리 동네 만들기(서울)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대구)
	역사문화경관	인천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정비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를 통한 도심활성화 사업(포항)
	자연경관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및 노을길	사람을 품는 경관! 천년고도 속의 오송제(한국토지주택공사)
	농산어촌경관	주민이 선도하는 토탈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	마을공동소유 토지를 활용한 새 가시리 가꾸기 사업(제주도 사귀포시)
우수상	시가지	대전광역시 목척교 시민생태공원	(구)도심 시가지 미관 및 경관개선사업(강원 원주)
		전주 태평문화공원	경기도 안성 중앙로 경관사업(경기도 안성)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앞산 맛 돌레길(대구)
		목포십자형 도시숲 조성사업	건고섬은 울산의 도심, 3대 디자인 거리 "길"(울산)
우수상	역사문화경관	근대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동래읍성 야간경관사업(부산)
	자연경관	여의도 한강공원 야간경관계획	2025 하동군 기본경관계획(경남 하동)
	자연경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사업	미루나무숲이 있는 보강천 경관사업(충북 증편)
	농어촌 경관	남사 예담촌 경관만들기	신라의 기가 흐르는 광양 도선국사 마을(전라도 광양)
특별상		서울시 경관계획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경관행정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지역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현대사회는 정보, 환경, 문화 등의 가치가 중시되는 문화시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가치의 인식과 발굴역량 부족으로 지역건축자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자산 DB 구축, 도시재생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활용·지원, 홍보 등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 마련, 우수한 건축자산에 대한 지정제도를 마련 등 제도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화순향교_시도유형문화재 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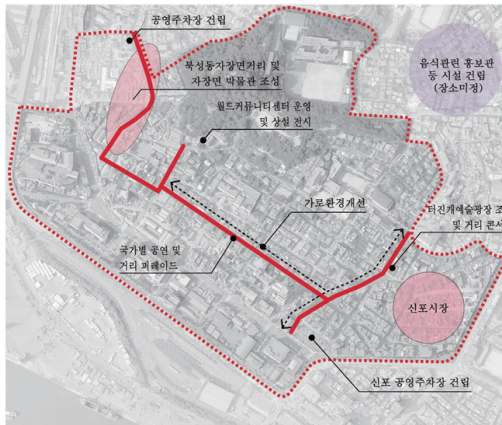
인천시 다문화특화 가로 조성사업

세계화에 따른 변화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4.5%(전국 5위)인 49,3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등록된 외국인만 집계된 결과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되며 주로 인천 남동구, 서구, 중구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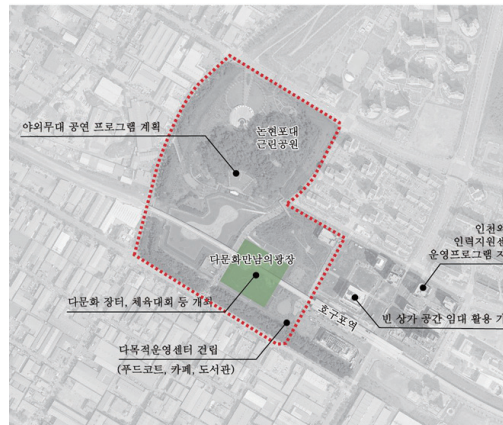
다문화특화 가로 조성사업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정비와 시설정비만으로는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선도시설이 요구되면서 최소 예산으로 외국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천시는 기존의 다문화특화 가로와 차별을 두기 위하여 이전에 ‘스토리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타 시도의 특화 가로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각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화 가로 조성계획을 세웠다.

외국인거주자가 많은 지역인 중구, 남동구, 서구를 다문화특화거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차이나타운이 있는 인천 최고의 관광지인 중구는 관광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논현지구가 입지한 남동구는 정주형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이 입지한 서구는 특화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였다.



관광형 다문화특화 가로 기본구상



정주형 다문화특화가로 기본구상



특화형 다문화특화 가로 현재 추진계획

시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디자인서울사업

디자인서울사업은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5대 정책 방향과 17대 핵심과제 중 ‘매력 있고 배려하는 디자인도시’를 정책방향으로 한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추진사업은 크게 시민소통기반의 도시디자인역량강화사업, 체험중심의 디자인교육 활성화 사업,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_서울」사업, 서울디자인 한마당을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대표축제로의 정착, 세계디자인도 서밋(GDCS) 정례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시민소통기반의 도시디자인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서울 시민 대토론회와 포럼을 연2회 실시하고, 디자인 서울 모니터 단을 운영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함으로써 도시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세 부사업을 진행하였다.

체험중심의 디자인교육 활성화 사업에서는 어린이 디자인창의력캠프 운영 및 서울디자인지원 센터에 「유네스코 디자인 서울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디자인 실무, 디자인 기초, 기업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디자인 특강’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이론·체험교육과 시민디자인 상설교육 같은 디자인 창의교육의 지원으로 서울의 디자인 시정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_서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신력 있는 유네스코 로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창의 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와 개도국의 생활개선을 위한 디자인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등의 세부 사업을 이어갔다.

서울디자인 한마당 축제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대표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명도 높은 국제공모전을 육성하고 서울 고유의 전시를 개발하여 국제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확대와 DDP 주변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가시적 경제효과의 극대화 및 디자인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나이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자인 교육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_서울」로고



시범사업 계획이미지_사진 자료 : 국민신문 (11.03.31)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전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지 25년이 지나 각종 시설물이 노후하고 보행인구가 많은 주거지역과 보행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는 장애물 없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조성 and 차도의 축소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보행환경 개선, 도로상의 편의시설 정비, 장애요인 제거, 안전시설설치 등의 통행환경을 확보하고, 노후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로변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색다른 거리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공공공간의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2011년 대구 한촌길~계줄고 사이에 위치한 도로인 중리길(570m)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로 약 32억 원이 소요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 및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이용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리 계획으로 BF 인증 획득에 따른 보도 패턴 및 개별 시설물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노후한 디자인의 불량 보도 및 가로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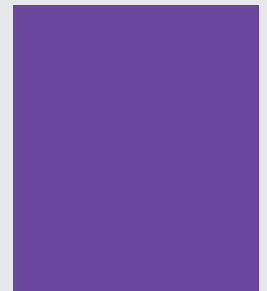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8.15 광복, 6.25 등 역사 문화적 산물인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 기반 자력수복형 종합재생 프로젝트로 '함께 만들기'를 통한 창조적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11~2021년까지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6개 구(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54개 동, 634천 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지형, 생활공동체 등이 고려되어 녹지와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중심의 3개 권역 9개 사업구역을 선정하고, 권역별로 상생적 순차 개발 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2011년도에 추진된 1차년도 사업은 중구 영주와 동구 초량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반시설과 공동체 이용시설, 마을 만들기 등 30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어 총 131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2012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서구 아미와 사하 감천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공동체시설, 지역특화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5개 유형에 대한 37개의 단위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 생활이 버젓하게 건설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리고 도시사람들이 사회와 문명을 유지하려면(나아가 발전시키려면)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유사 공공기관은 도시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획들 - 가령, 공원, 박물관, 학교, 대부분의 강당, 병원, 일부 사무실, 일부 주거 등 - 을 일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도시 다양성은 대부분 크게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진 민을 수 없이 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민간 조직들이 공공기능의 공적인 틀 바깥에서 계획하고 고안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도시계획과 설계의 주된 책임은 - 공공정책과 기능으로 할 수 있는 한 - 이런 광범위한 비공식적인 계획구상과 기회들이 공적 기획들이 변창과 더불어 꽃을 피우기에 적합한 장소로 도시를 발전 시켜야 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건물이 골고루 뒤섞여 있고 사람들이 조밀하게 집중되어 있다면, 다양성이 스스로 생겨나고 잠재력을 만개하기에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출판사, (P.325)



【 건축 정책 】
2010 - 2012

부록

| 유럽의 건축정책

유럽(EU)의 건축정책

유럽연합(EU) 건축정책 수립과정

EU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 건축법에 영향을 받아 1985년 최초로 승인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건축정책포럼(EFAP)은 1997년 네덜란드가 EU 의장직을 맡고 있던 시기에 건축정책에 대한 국제회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1999년 건축문화의 보급을 위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일반대중 사이의 관심을 촉발시키며,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럽 네트워크의 설립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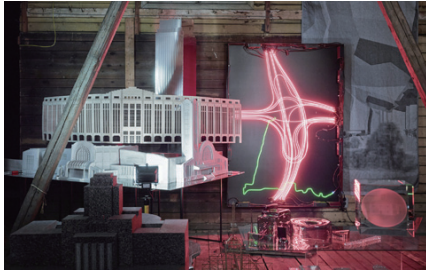
2000년 11월 프랑스 EU 의장직 시기 문화부 장관이 첫 번째 EU의 건축정책문서로 “국토환경의 건축적 질 향상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on Architectural Quality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을 승인하였고,

2007년 5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유럽의 장관들이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현장(Leipzig Charter of Sustainable European Cities)을 승인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후속조치로 유럽위원회에서 라이프치히 현장 결의안과 그에 따른 국가별 어젠다(Territorial Agenda and the Leipzig Charter of Sustainable European Cities)가 승인되었고, 같은 해 12월 유럽위원회에서 “건축의 귀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Council Conclusions on Architecture: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명명된 두 번째 건축 결의안이 승인되었다.

유럽연합(EU) 건축정책 수립과정

구 분	내 용
1985년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 건축법에 영향을 받아 1985년에 최초로 승인됨
1997년	• 유럽건축정책포럼(EFAP)은 1997년 네덜란드 EU 의장직 시기에 건축정책에 대한 국제회의를 통해 시작됨
1999년	• 건축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정책결정자들과 일반대중 사이의 관심을 촉발시키며,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럽 네트워크의 설립 필요성을 제창
2000년 7월	• 프랑스 EU 의장직 시기에 첫 번째 유럽건축정책포럼 컨퍼런스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 EU의 건축정책문서 “국토환경의 건축적 질 향상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on Architectural Quality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초안이 작성됨
2000년 11월	• EU의 문화 관련 장관들은 이 결의안을 승인하였고, 2001년 2월 12일 유럽연합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승인함
2001년	• 유럽건축정책포럼 컨퍼런스는 회원국들에 의해 매6개월마다 EU 의장국에서 개최됨
2000년 11월	• 프랑스 EU 의장직 시기 문화부 장관이 첫 번째 EU의 건축정책문서로 “국토환경의 건축적 질 향상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on Architectural Quality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을 승인함
2007년 5월	•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유럽의 장관들이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rter of Sustainable European Cities) 승인함
2008년 2월	• 후속조치로 유럽위원회에서 라이프치히 헌장 결의안과 그에 따른 국가별 어젠다(Territorial Agenda and the Leipzig Charter of Sustainable European Cities)가 승인됨
2008년 12월	• 유럽위원회에서 “건축의 귀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Council Conclusions on Architecture: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명명된 두 번째 건축 결의안이 승인됨
2012년 현재	• 유럽건축정책포럼 연합회는 유럽 전역에서 7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전문가 집단, 문화 관련 기관 그리고 개인회원으로 구성됨



핀란드 건축 박물관

[출처] 핀란드 건축박물관(<http://www.mia.fi/>)

HDA

[출처] Haus der Architektur Graz (<http://www.hda-graz.at/>)

비엔나 건축 센터

[출처] Architekturzentrum Wien (<http://www.azw.at>)

유럽연합(EU) 건축정책의 계획과 실행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

• 건축문화 기구 지원

유럽의 몇몇 회원국들은 건축정책과 관련된 기관, 센터, 재단, 박물관, 아카이브 등 건축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건축문화 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핀란드 건축박물관(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유럽 전역에 새로운 건축문화 기구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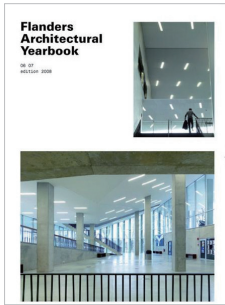
건축문화 기구는 주로 전시, 출판물 발간, 콘퍼런스, 토론회, 연구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추진한다.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는 오스트리아 건축센터(Austrian Houses of Architecture), 1988년 그라츠에 설립된 HDA(Haus der Architektur), 1993년 설립된 비엔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re Vienna) 등이 있다.

• 문화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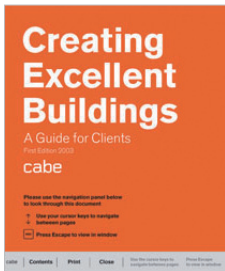
건축문화 기구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건축시범사업 또는 전시회 등 혁신적인 문화사업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의 예술 관련 기관에서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개인 및 민간기관에 건축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연구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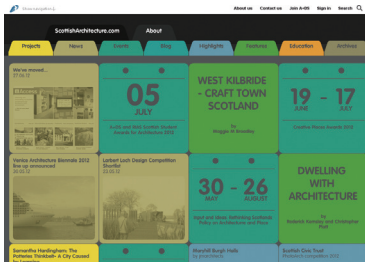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건축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네덜란드 건축기금(Netherlands Architectural Fund)은 건축, 도시설계, 계획, 조경, 실내건축 분야의 정보교류 및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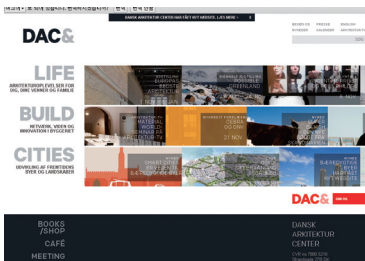
벨기에 건축



CABE 'Creating Excellent Buildings'



스코틀랜드 건축 웹사이트



덴마크 건축 웹사이트

• 건축정책 관련 출간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은 정부부처 및 부서를 통해 건축, 도시설계 및 계획, 조경, 문화유산 분야의 출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건축(Flanders Architectural Yearbook)은 건축과 도시 분야 개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건축(Best of Austria)은 교육부, 예술문화부에서 추진한 건축문화 관련 정책 사업들을 소개하는 책자이다.

•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일부 유럽 회원국은 건축, 도시설계, 문화유산 보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폭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인 주제를 담아 공간환경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있다.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검증된 우수사례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단순히 전문분야 및 공무원에게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건축 웹사이트 및 DB 구축

인터넷 웹사이트는 건축과 공간환경의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건축, 도시설계, 문화유산에 관한 인터넷 포털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수 인터넷 웹사이트 사례로는 스코틀랜드(www.scottisharchitecture.com), 덴마크(www.dac.dk) 등이 있다.

• 건축시상제도

공간환경에서의 혁신사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유럽회원국에서는 다양한 건축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시상제도는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비정부조직의 공공단체, 전문가집단, 민간회사 등에서 확산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 관련 시상제도 사례로는 프랑스의 'Grand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와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 네덜란드의 'Gouden Pyramid', 스페인의 'National Award for Dwelling Quality' 등이 있다.

•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의 사례로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도시계획과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가 학습프로그램을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

[출처] Topos (<http://www.toposmagazine.com/blog/5th-international-architecture-biennale-rotterdam-making-city.html>)



로테르담 건축영화 축제

[출처] <http://www.luisurculo.com/blog/?p=658>



런던 건축문화제

[출처] http://www.bustler.net/index.php/event/london_festival_of_architecture_2012/



프랑스 MIQCP

영국 CABC

• 교육 프로그램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이다. 일부 유럽 회원국에서는 기초건축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정규교과에 채택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영역 밖에서는 문화단체, 비영리 건축전문기구 등 일부 기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 건축문화제 및 이벤트

건축문화제 및 이벤트는 전시, 콘퍼런스, 길거리 축제, 보트투어, 디자인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유럽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건축문화제는 보통 매년 단위로 며칠 단위에서 일주일, 또는 1개월 정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간혹 2년 주기(런던 건축문화제) 또는 3년 주기(리스본 건축문화제)로 운영되는 건축행사도 있다.

네덜란드는 건축이벤트로 2년마다 건축영화 축제(Architecture Film Festival Rotterdam)를 개최하기도 하며, '국제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와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건축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젊은 건축가 지원

유럽의 일부 행정부에서는 젊은 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수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사례로서 프랑스는 정부에서 젊은 건축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the New Albums of Young Architects'를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공공 발주 건축 사업을 수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공공사업 부서에서 건축가를 선택할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함이다.

공공건축 정책의 개선

• 국가 건축 지원기구(National Architectural Advisory Body)

건축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은 모든 정부부서의 공통된 목적으로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 지원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프랑스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MIQCP(Mission Interministerielle pour la Qualite des Constructions Publiques)를 설립하였고, 1999년 영국은 건축과 도시설계에 관한 정부 지원기구인 CABC(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설립하였다.

• 국가 건축가(State Architect)

일부 회원국에서는 공공부문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전반에 관하여 정부에게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건축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건축가의 역할은 모든 공공건축물의 건축적 품질과 도시통합을 향상시키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계획의 건축적 화합, 건축문화 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공공건축 사업을 제안하고, 연간 입찰절차를 토대로 적절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디자인 챔피언(Departmental Design Champion)

영국은 모든 정부부서에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전문직으로서 디자인챔피언이라는 별도의 직책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역 건축가(Regional Architect)

네덜란드는 1998년에 지역건축가로서 저명한 건축가(Bob Van Reeth)를 선정하여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기반시설, 조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 지역의 건축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지역 건축지원 기구(Local Architectural Advisory Body)

일부 유럽 회원국은 지역 차원에서 건축과 도시설계의 품질 향상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역 건축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지자체 건축 관련 공무원 및 발주자에게 기술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건축설계경기 운영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지역건축지원 기구로 1977년 프랑스 건축법에 근거하여 CAUE(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Environnement)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정건축가(City Architect)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건축정책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건축적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정건축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정건축가는 지방정부에 의해 위촉된 독립적인 자문가로서 지방 행정조직과 연계되어 해당 지역의 특정 건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며, 지방행정조직에서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프랑스 CAUE

• 연구사업(Research Projects)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은 건축과 공간디자인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연구사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건축에 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부서 내에 건축 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일부 회원국은 건축문화유산, 육아시설, 경관, 인구밀도 등에 대한 폭넓은 범위에서의 디자인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부 관계자 및 개발업자 일반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지역건축재단에서 발간한 'Kompas'라는 매뉴얼은 지방정부와 전문기구에 의해 승인된 건축설계경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독일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현상설계공모가 건축부문에 적합한 별도의 현상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공공건축 시상제도(Public Buildings Awards)

건축문화 시상제도와 유사하게 일부 회의원에서는 우수한 공공건축물, 공공건축 사업을 우수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 사례를 시상하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Prime Minister's Better Public Building Award, 포르투갈의 Public Housing and Rehabilitation Award, 벨기에의 Public Procurement Award 등이 있다.

• 디자인 공모제도

유럽 회의원국에서 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성공적인 수단 중 하나는 건축설계공모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디자인공모는 대상 지역의 동일한 디자인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가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에 따라 도시환경의 미래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프랑스는 1980년 이후 공공건축물 신축 시 디자인 공모제도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1,000회 이상의 디자인 공모제도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건축설계경기의 컨셉을 토대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수행할 건축가를 선정하는 'Open Call' 방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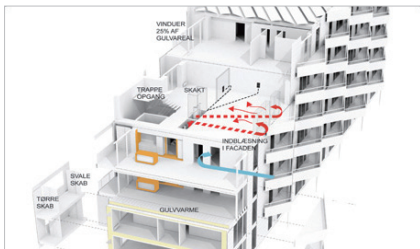


wonderland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출처] <http://batchgeo.com/map/net-zero-energy-buildings>



Bolig+

[출처] <http://www.vglcph.dk/?lng=uk>

• 국제 기구 지원

일부 유럽회원국에서는 건축정책 관련 조직과 계획을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대표사례로는 유럽건축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원더랜드(Wonderland)가 있으며, 원더랜드는 유럽 내 건축사업 국제 팀을 결성하여 범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분야의 다양한 연구 수행, 전시와 다양한 출판 등을 회원국 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장려

• 지속가능한 시범사업

에너지 효율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태양열건물이나 패시브빌딩 같은 혁신적 디자인을 새로 지어지거나 리노베이션되는 건물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하고자 한다. 대표사례로는 오스트리아의 연구프로그램인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와 덴마크의 시범사업인 'Bolig+'가 있다.

• 출판물,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아일랜드 문화부는 역사적인 건조 환경이 장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언어보호구역과 관련한 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지원하는 유럽의 우수 인터넷 웹사이트 사례로는 스코틀랜드 "Scottish website Sust.org", 덴마크 "Danish portal on sustainable cities)" 등이 있다.

• 에너지효율 건축에 대한 보조금

여러 회원국은 보조금제도를 통해 에너지효율적인 건설과 저에너지 건축물을 촉진하는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계획 및 실행방안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수사례로는 체코의 '그린건축 프로그램', 스코틀랜드의 '서스트 프로그램' 등이 있다.

• 현상설계의 지속성

건축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현상설계의 척도처럼 광범위하게 소개된다. 건축물 프로젝트 경쟁(현상설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발계획, 지속가능한 건축 디자인의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까지 모두 포함한다.

• 건축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상

일부 행정기관은 시상을 통해 결합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내의 혁신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결합개발 건축과 효과적인 건설자원, 향후 개발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스트리아 주정부상'을 시상하고 있다.

•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 성능기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감축 요구는 유럽 연합(2002/91/EC)의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라벨제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한다. 북유럽의 친환경 라벨은 빌딩,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 큰 규모의 주거지 등 여러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공정, 재료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웹사이트



덴마크 웹사이트

참고문헌 · 출처

단행본

- 조지 프리드먼(2010), NEXT 100 YEARS, 김영사.
- 김현기 외 4인(2010),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한스미디어.
- 박영숙 외(2009),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2」, 서울: 교보문고
- Peter F. Druker(2011),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
- 조선경제 연결지성센터(2010), 세상을 움직이는 키워드 인사이트 지식사전, 쌤앤파커스.
- 대니얼 앨트먼(2011), 10년 후의 미래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바꿀 12가지 트렌드, 청림출판.
- 박영숙 외(2011), 「미리 가본 2020년 유엔미래보고서 2」, 서울: 교보문고
- 최숙희(2007.08),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레스터 서로우(2005), “세계화이후의 부의 지배”, 청림출판.
- 권순우, 신창목 외(2011), SEFI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국토해양부.
- 김동주 외(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마련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7),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 · 조세의 재분배, 기획재정부.
- 박병원 외(2008),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과학기술부.
- 심우배(2011),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방재 패러다임과 도시정책방안, 국토연구원.
-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 (기획처, 2006)
- 산업비전 2030 (산업연구원, 2006)
- IT 기술예측 2020 (2006, 정보통신부)
- The 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2008 Report
-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체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권혁진(미래전략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우리의 대응과제’, 트렌드와 미래
- 이용우 외(2009), 「국토 대예측 연구(I)」, 국토연구원.
- 강홍렬 외(2006a), 「메가트렌드 코리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홍렬 외(2006b), 「IT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진욱, 김영현, 이민우의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2009)
- 인포마스터(2010),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
- European Forum(2011),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European Forum.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3), 2010-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국토해양부.
- 김상호, 김영현 외(2009),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 정석희 외(2008),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사업방식 연구,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한국경관학회(2011),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엄철호 외(2010), 201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 브이아이랜드(201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서, 국토해양부.
- 박문호, 안영애 외(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 (2012)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1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서수정, 김철영 외(2010), 특별건축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
- 엄철호 외(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상호, 강 식, 김성주 외(201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 김민수, 우신구 외(2012), 부산건축기본계획, 부산국제건축문화제
- 최찬환, 김문일, 강희달 외(2010), 서울시건축기본계획 연구용역,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건축사협회

통계자료

- 통계청(2005), Forster and Mira D'Eroole, OECD data(05)
- 통계청(20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매출액 및 사업체수

- 국토해양부(2011),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국토해양부
- 문화재청(2011), 지역별 한옥문화재 보유 현황

법제도 및 지침

- 건축사법 개정([법률 제10756호, 2011.5.30, 일부개정])
- 경관법 전부 개정([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행 2011.9.30] [법률 제10466호, 2011.3.29, 일부개정])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안(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65, 2010.5.24)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시행 2012.4.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타법개정])

-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시행 2011.12.1] [법률 제10754호, 2011.5.30, 일부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3.17]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1.6, 일부개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안([제안일자 2012.6.5], [상정일 2012.9.18], 현 위원회 심사 중)
-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개정 2010.10.18), 도시개발과

고시 및 보도자료실

- 고시(2009.12.28),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문화경관팀
- 고시(2011),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및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고시(2011.12.8),「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
- 공고(2012.1.9), 2013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공고, 국토해양부
- 보도자료(2012.2.23),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창호의 단일 기준 50% 강화 및 냉방자감을 위한 기준 신설),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2.2.23),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규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개정),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09.4.24), 경관도로 조성사업, 도로환경과
- 보도자료(2011.10.19), 「201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선정, 건축문화경관팀
- 보도자료(2010.12.29), '11년도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마을 선정, 환경부/행정안전부
- 보도자료(2011.2.24), 도시개발사업, '녹색 개발' 체제로 전환, 도시재생과
- 보도자료(2012.2.2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공포,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0.6.29),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주택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 보도자료(2012.2.23),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0.05.25), 국토부, 가정의 에너지절약 방법 제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배포),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1.02.14), 건축물 통계,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1.12.22),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구조 지침」제정,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1.6.20), 보전지역 내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도시정책과.
- 보도자료(2010.12.8), 서울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도시계획국.
- 보도자료(2011.5.11),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해안경관가이드라인」제정)
- 보도자료(2011.10.19), 도공,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수상, 한국도로공사
- 보도자료(2010.12.31), '11년도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마을 선정, 환경부/행정안전부
- 과업지시서(2012.6),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과업지시서(2012.9),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교재개발 연구용역, 건축문화경관팀
- 보도자료(2012.4.19), 건축물, 녹화 공간 조성으로 새롭게 단장,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건축기획과
- 보도자료(2011.4.20), 국토해양부, 한옥전시장 건립비용 지원 (한옥 보급·확대를 통한 한옥건축 활성화에 기여), 건축문화경관팀
- 보도자료(2012.7.2) '13년부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보도자료(2012.12.6) 2012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보도자료(2010.7.6)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거복지기획과, 공동주택건설과

국내사이트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 빌딩스마트협회, <http://www.buildingsmart.or.kr/default.aspx>
- 브이아이랜드, <http://www.colago.kr>
- 2011 광주폴리 프로젝트, http://www.gwangjubiennale.org/folly/view/?mode=view&bn_idx=60
- 국가한옥센터, <http://www.hanokdb.kr>
- 문화역서울 284, <http://www.seoul284.org>
- 창조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http://www.busan.go.kr/03administration/0302project/08_01_01.jsp
- 대한민국 경관대상, www.k-scape.or.kr
-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대전, www.lcdc.kr
-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 한국유비쿼터스도시시험회, www.ucity.or.kr
- 국토해양부 정책마당,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98

기타

- 2005 State of the Future(UN University, 2005)
- Mapping the Global Future(NIC의 2020 Project, 2004)
- The DCDC Global Strategic Trends Programme 2007~2036 (영국, 국방성)
- Foresight 2020 Economic, Industry, Corporate Trends (영국 EIU, 2006)
- Looking forward S+T 21C (캐나다 NRC, 2005)
- Finnsght 2015 (핀란드, 2006)
- Innovation 25 (일본, 2006~2007)
- 제1회 대한민국경관대상 수상작作品集(2012)

사진출처

건축정책의 여건과 전망

-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 전경 (10)
- 프랑스 파리의 도시전경 (10)
- 남대문 화재사건 현장 (12)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http://design.seoul.go.kr/>)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WIKIMEDIA COMMONS (<http://commons.wikimedia.org>)

국토디자인 향상

- 이탈리아 소렌토 해안경관 (39)
-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안경관 (39)
- 함마르비 수변녹지축 및 경관 (40)
- 샌안토니오 야간 친수경관 (40)
-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 친수경관 (48)
- 호주 시드니 항만 친수경관 (48)
- 영국 카디프 항만 친수경관 (48)
- 일본 하코다테 항만 친수경관 (48)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친수도시해외사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친수도시해외사례)
 라펜트-환경과조경 (<http://www.lafent.com>)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세계도시정보(<http://ubin.krihs.re.kr/>) - 사진자료실
http://www.hakodate-kankou.com/f/index_k.html

건축·도시환경 개선

- 사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67)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http://elc.sacheon.go.kr>)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 건축물 녹화 설계 사례_그린위빙 클럽하우스 (89)
-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사건' (91)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www.auric.or.kr) - 건축물 >현대건축물
http://ipn119.co.kr/sub_read.html?uid=14520§ion=sc72

유럽(EU)건축의 정책

- 핀란드 건축 박물관 (116)
- HDA (116)
- 비엔나 건축 센터 (116)
- 국제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 (118)
- 로테르담 건축영화 축제 (118)
- 런던건축문화제 (118)
-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121)
- Bolig+ (121)

핀란드 건축박물관(<http://www.mta.fi/>)
 Haus der Architektur Graz (<http://www.hda-graz.at/>)
 Architekturzentrum Wien (<http://www.azw.at>)
 Topos(<http://www.toposmagazine.com/blog/5th-international-architecture-biennale-rotterdam-making-city.html>)
<http://www.luissurculo.com/blog/?p=658>
http://www.bustler.net/index.php/event/london_festival_of_architecture_2012/
<http://batchgeo.com/map/net-zero-energy-buildings>
<http://www.vglph.dk/?lng=uk>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경관법 개정
건축디자인기준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해안경관가이드라인
수변경관가이드라인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
채광형 시설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2011 광주불리 프로젝트 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개선
형만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건축디자인 기준
공공건축 설계과정평가지표(DQI)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강원도 춘천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도시공간 조성'
경북 영주시,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대전 중구, '대전 문화로를 "대중교통" 조성사업'
부산, "행복한 도시이촌 청사도 만들기"
충북 충주, '도시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
(2010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광원 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칠세마을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경남 거창,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울진군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건축·도시환경 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보급주거주택의 디자인 특화 추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공공건축사 시상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제출)
도시개발 사업방식 개선
해피하우스 사업

녹색건축·도시 구현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설계기준 강화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범도입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규정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설계 가이드라인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산업인력 양성사업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그린홈 보급자리주택 공급
에너지소비량 인타켓 공개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그린스쿨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 사업(경문)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건축사 역량 강화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법위와 대가기준 개선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건축물 설계기준
건축설계 BIM 도입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 표준화 연구개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고층 건축물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구축(경남) U-City 시범도시 선정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한옥 발전전략 수립
한옥 공공건축물 예산 및 기술 지원
국가 한옥센터 설립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문화역서울 284 사업
유류시설을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방안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 관련 행사 통합 강화방안 연구 수행
건축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기초건축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교재 주요내용 개발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한민국 경관대상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지역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인천시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
시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디자인서울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산책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 건축정책 | 2010-2012

|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문화경관과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연구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연 구 진 | 연구책임 조상규 연구위원

연 구 원 김영현 연구원

이경신 연구원

THE ARCHITECTURAL POLICY OF KOREA

